

최 인 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임 현 희

논문개요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의 적절한 시작시기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교통 등의 놀라운 발달로 세계인들과의 경쟁과 협력이 필수적인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인들과의 적절한 교류가 없다면 생존이 어려운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교류의 수단인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 220여 개국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 수천여종 가운데서도 세계 정보의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는 이 시대의 국제공용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어의 수행능력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97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능력 신장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유아연령층의 영어학습에도 영향을 미쳐 해마다 유아영어학습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기영어학습 시장은 약 3조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아동들의 영어학습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조기 영어학습이 아이들의 영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업체의 선전 문구에만 매달려 조기영어학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기 영어교육으로의 막대한 투자에 따라 의미 있는 교육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조기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기영어교육을 찬성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학자들의 견해들을 고찰하고 영어능력평가와 설

문 연구를 통해 영어학습 시작시기와 영어능력간의 관계 및 영어사교육과 영어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영어교육의 합리적인 시작시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영어학습 시작연령간의 관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능력은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영어능력이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노력에 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11학급의 학생들과 초등학교 6학년 2학급의 학생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도시의 중학교 1학년 3학급 학생들을 표본집단으로 선별하였다.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하여 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영어학습 시작시기 및 영어 사교육 여부 등의 관계를 통계 분석하여 과연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영어능력이 탁월하게 높아지는지, 영어 사교육이 영어실력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변수가 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영어능력과 영어학습 시작 연령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중학교의 경우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과 영어능력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이 꼭 반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6세, 7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영어능력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시작할수록 평균 점수는 낮아졌으며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영어능력 또한 8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보다 평균점수가 낮아 영어학습을 5세 이전 어린 연령층에게 실시하는 것은 그 노력에 비해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의 내재화 정도의 차이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대한 영어능력의 내재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도 6세 이상에서 영어학습 시작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내재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5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는 6세에 시작한 경우보다 내재화 정도가 낮았다. 이 또한 너무 어린 연령층에 영어학습을 시키는 것은 영어능력의 내재화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초등이나 중등 모두 영어능력시험 성적 상위 30%의 학생과 하위 30% 학생들의 학교 외 장소에서의 학습여부에서 비슷한 비율의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영어성적이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영어능력시험 성적 상위 30%의 학생과 하위 30% 학생들의 영어학습 실태를 보면 1주일의 공부횟수나 공부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횟수나 시간 자체가 영어능력의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 례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 문제	8
4.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 조기 영어교육을 지지하는 이론들	10
2. 조기 외국어교육에 대한 반대 이론들	18
3. 언어학습 이론	19
4. 유아기의 언어 발달적 특성	21
5. 현대의 유아교육 실정	23

III. 연구 방법

1. 피험자 선정 및 평가 실시	26
2. 연구 절차	26
3. 연구 도구	27
4. 자료 처리	32
5. 연구의 제한점	33

IV. 연구 결과

-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한 결과 34
- 2.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결과 52

V. 결론

- 1. 결론 72
- 2. 제언 7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차 례

<표 III-1> 소요시간 및 문항 구성(Movers)	28
<표 III-2> Listening(Movers)	29
<표 III-3> Reading & Writing(Movers)	29
<표 III-4> 소요시간 및 문항 구성(Flyers)	30
<표 III-5> Listening(Flyers)	31
<표 III-6> Reading & Writing(Flyers)	31
<표 IV-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34
<표 IV-2>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분석	35
<표 IV-3>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 능력 관계	35
<표 IV-4>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 능력 관계 분석	35
<표 IV-5>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36
<표 IV-6>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분석	36
<표 IV-7>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로 꾸뛰본 경험 분석	37
<표 IV-8>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분석	38
<표 IV-9>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 정도	39
<표 IV-10>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40
<표 IV-1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분석	40
<표 IV-12> 영어의 활용 정도	41
<표 IV-13>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의 활용 정도 분석	41
<표 IV-14> 학교 외 장소의 영어학습 여부	42
<표 IV-15> 수준별 학교 외 장소의 영어학습 여부	43
<표 IV-16>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43

<표 IV-17>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분석	43
<표 IV-18>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44
<표 IV-19> 상위권 학생들의 주당 영어공부 횟수	45
<표 IV-20> 수준별 영어공부 횟수	46
<표 IV-21> 상위권 학생들의 1일 영어 공부시간	46
<표 IV-22> 수준별 영어 공부시간	47
<표 IV-23>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	47
<표 IV-24> 많이 사용하는 영어학습 방법	48
<표 IV-25>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공부 방법	48
<표 IV-26>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69
<표 IV-27> 수준별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50
<표 IV-28>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50
<표 IV-29> 수준별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51
<표 IV-30>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52
<표 IV-3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분석	53
<표 IV-32>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능력 관계	53
<표 IV-33>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능력 관계 분석	54
<표 IV-34>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54
<표 IV-35>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분석	55
<표 IV-36>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로 꿈꿔본 경험 분석	56
<표 IV-37>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분석	57
<표 IV-38>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 정도	58
<표 IV-39>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59
<표 IV-40>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분석	59
<표 IV-41> 영어의 활용 정도	60

<표 IV-42>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의 활용 정도 분석	61
<표 IV-43> 학교 외 장소에서의 영어학습 여부	62
<표 IV-44> 수준별 학교 외 장소의 영어학습 여부	62
<표 IV-45>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63
<표 IV-46>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분석	63
<표 IV-47>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64
<표 IV-48> 주당 영어학습 횟수	65
<표 IV-49> 수준별 영어학습 횟수	65
<표 IV-50> 1일 영어학습 시간	66
<표 IV-51> 수준별 영어학습 시간	67
<표 IV-52> 영어를 학습하게 되는 동기	67
<표 IV-53> 많이 사용하는 영어학습 방법	68
<표 IV-54>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공부 방법	68
<표 IV-55>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69
<표 IV-56> 수준별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70
<표 IV-57>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70
<표 IV-58> 수준별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7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이자 정보화시대이며 세계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로 좁아져서 한 마을처럼 된 세계(global village)라는 뜻의 지구촌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의사소통능력일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이다(Hymes, 1972).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언어의 사용능력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언어란 말소리나 글자로 의미를 결합시킨 상징적 기호체계로서 의도한 바를 말소리나 글자에 의해 인간 상호간에 소통하는 수단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교류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가면서 인종과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추구하게 되었다(최홍규, 2000). 그리하여 200년~800년 전부터 언어를 달리하는 인류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현재 전 세계에는 220여개의 국가에서 수천여 종이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1887년 폴란드의 안과 의사인 자멘호프(Zamenhof)박사는 세계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에스페란토어를

창안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어인 영어이다. 영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국제 정치, 외교,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사회에서 뒤지지 않고 생존하여야 하는데 그 도구가 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둘째,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정보화시대에 세계정보의 85%가 영어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 과학 기술 정보와 학술적 연구 결과를 입수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셋째, 영어는 문물 교류의 수단으로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물을 소개하는 데에도 필요하며 넷째, 영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김진철 등, 1998).

Holen(1987)은 전 세계 라디오 방송의 60%, 전 세계 전화통화의 약 85%, 전 세계 우편물의 70%, 70여 개의 언어로 발간되는 세계과학기술 관련 출판물의 45%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Kaplan(1982)에 의하면 세계정보의 85%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또한 전 세계 약 7억 개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Naisbitt, 1993). 이렇듯 영어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핵심적 자산인 정보를 소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광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국제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이란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세계는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영어교육의 적절한 시작시기에 관한 것이다. 1954년 UNESCO 주관으로 개최된 국제현대언어교육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the Teaching of Modern Language)에

서는 모든 참가국들이 외국어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1962년 UNESCO 주관으로 개최된 함부르크 회의(The Hamburg Conference)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조기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배천웅, 1986). 1992년에 영국의 리즈대학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영어교육 연수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23개국에서 영어를 이미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영어교육시작의 최적 연령을 3~6세라고 보는 국가가 14개국, 7~11세가 바람직하다는 국가가 7개국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경석, 1993). 이미 세계 60여개 국가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또는 이중 언어로 가르치고 있다(배두분, 2000).

조기 외국어 교육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지만 여러 나라들에서 조기영어교육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또한 국제화 교육을 위한 조기영어교육방침을 확정하고 1992년 제 6차 조기영어교육을 전제로 교육과정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6년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기로 확정하여 1997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실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실시는 더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에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는 많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0년대 이후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이 사교육의 주요 분야로서 각종 영어교재와 학습지, 유아대상 영어사설학원, 영어교육관련 비디오, 미취학아동의 해외 영어연수 등 갖가지 방법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영어교육시기가 점차 하향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조기영어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는 관계없이 수년 전부터 이미 전국 8000여개의 유치원 중 상당수와 많은 사설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한다(이혜란, 1994).

또한 정태열(1998)의 연구에 의하면 165개 유치원 중 97개의 유치원에서 유아영어교육을 실시(59%)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에 설문결과 유아영어교육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92.7%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가 47.7%, 영어교육경험이 있는 학부모도 17.7%, 영어교육을 할 예정인 학부모는 24.5%로 영어교육경험이 있는 유아가 조사인구 중 65.4%나 되었고 영어교육예정인 학부모까지 더한다면 89.9%의 높은 비율의 유아인구가 조기영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숙자, 2001).

또한 이경희·전예자(1996)의 조기 영어교육의 찬반여부에 따른 조사에 의하면 현재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가정의 부모 모두 '찬성한다'가 각각 80%, 75.7%이고 '반대한다'가 각각 8.9%, 19.1%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취학 아동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기영어교육에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그에 따른 물질적이며 시간적인 투자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자연스러운 발음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기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져 외국어에 대한 편견이나 language ego가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노출되어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조기영어교육현상이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영어능력

은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이 어릴수록 높다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은 날이 갈수록 식을 줄을 모른다.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이 그렇게 엄청나다면 이런 노력들이 영어실력의 향상에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조기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영어실력이 향상되는지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어교육을 어느 시기에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10대 초반에 처음 영어라는 과목에 첫걸음을 떤 후 수 년 또는 수십 년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영어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Jakobovits(1970)는 외국어 학습의 성공 요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동기가 33%, 지능이 20%, 소질이 33%, 기타 14%라고 하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들은 영어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학습에 도전하게 되어 영어성취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영어학습에 임하게 되지만 성인과는 크게 다른 유아들에게 영어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기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나 제2언어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영어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고 학교 수업시간 외에도 생활환경이 모두 영어이므로 교실에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본인이나 주위의 영어 교수자가 의도적으로 언어적 Input을 주어야만 언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이다. 그러므로 그 언어적 Input을 언제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적당한지, 영어교육의 시작 시

기에 따라 영어 실력이 차이를 보이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속화되어 가는 유아영어교육시장의 변화 속에서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만큼 유아들에게 영어학습의 동기가 부여되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능력향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조기 영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투자되는 현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것과 영어능력의 향상이 정비례하는지, 영어능력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 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된다.

조기영어교육에 관련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련된 교재분석이나 연구들은 종종 볼 수 있었지만 학령전기 유아들의 영어교육이나 그에 따른 결과의 추적조사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기영어교육시기에 따른 영어능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사회의 분위기 흐름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표본 집단을 설정하여 영어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와 평가집단의 영어공부시작시기 등을 비교하여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와 투자되는 노력에 대해 영어능력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앞으로의 조기영어교육현장에 있어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국내 영어 시장의 규모는 영어학원과 학습교재, 해외 연수 등을 합치면 한해 4조~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학원 관계자들은 전국의 영어학원이 실제로는 최소한 1만 개가 넘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만도 한해 2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각종 영어 관련 서적도 30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 유아부터 초·중고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지 시장의 규모도 7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조기 영어교육이 유행하면서 유아들이 가지고 놀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장난감, 스티커, 비디오 등 교구재 시장도 3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장단기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과 일반인들의 연수비용과 이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합치면 최소한 1조 5000억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동아일보, 2002, 2, 4)

뿐만 아니라 영어의 발음을 능숙하게 하게 하기 위해 아동의 혀바닥 밑부분 즉 설소대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성행한다고 하니 영어학습에 누구나라고 할 것 없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이처럼 조기영어학습 시장은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데 이런 조기영어교육의로의 막대한 투자에 대하여 영어능력 향상이 100%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즉 교육의 효율성과 기회비용간의 관계는 거의 검증이 안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교육적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조기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문헌과 영어능력 평가 및 설문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효과가 있다면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영어교육의 합리적인 시작시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지능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영어학습 시작연령 간의 관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능력은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영어능력이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에 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1) 조기영어교육

우리나라에서 흔히 ‘조기교육’을 논할 때 학자들은 ‘조기’의 개념을 6세 이전 또는 취학 전의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조기영어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수준의 영어교육을 생각한다(이혜란, 1995).

‘조기’라는 말은 학교 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고려하여 성인들의 보호를 받

으며 교실 수업을 받는 어린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Brumfit et al., 1991).

이런 측면에서 영어교육에 있어서 조기란 유치원부터 또는 초등학교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육 과정에 영어가 명시되지 않고 있어 조기영어교육을 초등학교 영어 교육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조기 영어교육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만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생각한다. Rivers(1981)는 조기 언어 교육이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배우는 경우를 지칭하며 12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이란 0~12세의 유아연령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영어능력

언어에 관해서 언어능력이란 언어체계에 관한 기저지식, 즉 문법 규칙, 어휘, 언어의 모든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언어수행은 언어사상의 실제 표출(말하기, 쓰기) 또는 이해(듣기, 읽기)이다(Brown, 1980). 여기서는 실제 영어능력이 표출되어 측정할 수 있는 영어수행능력까지를 영어능력으로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기 영어교육을 지지하는 이론들

사람은 일상생활을 통해 출생 후 수년 내에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유아들이 언어습득에 대한 특별한 학습과정 없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어왔으며 일부에선 지금도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언어습득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한다. Penfield(1959)는 사람이 어릴 때에는 두뇌의 기능이 완전히 분화,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두뇌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유연성(plasticity)이 크다고 하였으며 이 결정적 시기 이후에는 아동들의 두뇌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결정적 시기 이전에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들에 비해 사회, 문화적 탄력성이 커서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문화를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이완기, 2000).

이밖에도 여러 관점에서 조기언어교육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으며 현재 이런 이론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기 언어교육의 타당성에 대해 크게 언어학적, 인지적, 생리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학적 관점

생성문법 학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짧은 시간 안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언어습득장치를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 라 하는데 LAD의 특성을 Brown(1980)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① the ability to distinguish speech sounds from other sounds in the environment.
- ② the ability to organize linguistic events into various classes which can later be refined.
- ③ knowledge that only a certain kind of linguistic system is possible and that other kinds are not.
- ④ the ability to engage in constant evaluation of the developing linguistic system so as to construct the simplest possible system out of the linguistic data that are encountered.

즉 언어습득장치라 함은 환경 속에서 다른 소리로부터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며, 언어적 사건들을 나중에 다듬어질 수 있는 다양한 등급으로 조직하는 능력, 어떤 유형의 언어체계가 가능하며 불가능한지 아는 지식, 만나는 언어정보로부터 가장 간단한 체계를 구성하기위해 발달하는 언어체계를 끊임없이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Chomsky(1959)는 모든 아동은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 LAD)라는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언어에 관한 한 모

국어이든 외국어이든 그 언어에 노출만 시켜 주면 쉽고 빠르게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AD가 6, 7세 즉, 취학 전 아동들에게서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고, 아동이 12, 13세가 되면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Chomsky의 이론을 바탕으로 Eliot(1983)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 LAD를 타고난다고 말하고, 타고난 LAD가 가장 왕성한 유아기에 조기의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McNeil(1966)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정상아라면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언어를 익히든 간에 대략 1.5세에서 말을 시작하고 3.5세에 이르러 문법의 기틀이 잡히게되므로 실제로는 2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복잡한 언어의 기본적인 사항을 대강 익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언어습득장치 즉 LAD가 가장 활발한 12~13세 이전에 언어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 인지적 관점

Piaget(1952)는 어린이가 태어날 때 인지습득 장치 (Cognitive Acquisition Devices; CAD)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인지적발달이 빠르고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언어교육을 시키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지발달에 있어서 균형(equilibration)을 강조하였는데 균형은 계단식으로 지식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는 지식의 내재적 조직화라고 정의하며, 인지발달은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를 반복하다 최후의 균형상태에 도달하

는데, 어린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를 인지적으로 계속 습득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평형상태인 성인보다 제2언어를 쉽게 배우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Rosansky(1975)는 자기중심적 요인이 강한 유아들이 최고의 집중상태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만의 관계만을 고려하게 되므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성인에 비해 쉽게 제2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성인은 어휘나 문법학습에 뛰어나며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력이 우수하지만 지나친 의식과 분석력이 오히려 언어습득 과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은 유의미적 학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유의미적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장기간 기억보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들은 인위적인 언어학습환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외국어를 외우고 익히려 하므로 유의미적 학습이 어렵고, 기계적 학습에 의존하게 된다(Ausubel, 1964). 그러므로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에게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자연스런 모국어 습득과정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3) 생리학적 관점

신경·생리학자들은 언어습득이 대뇌의 반구편중현상(lateralization) 및 대뇌유연설(brain-plasticity theory)과 같은 뇌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20세기에 들어와 언어와 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대뇌의 반구편중현상(lateralization)은 좌뇌와 우뇌의 기능적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대뇌 중 특히 좌반구가 언어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우반구는 정

서적 처리, 통합적 사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대뇌의 한쪽 반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언어능력의 반구편중현상은 수화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나타난다. 즉, 수화는 여러 면에서 공간적·분석적임에도 불구하고 좌반구 손상아동이 수화로 표현할 때 문법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Maratsos, 1989).

신경·생리학자인 Penfield와 Roberts(1959)는 뇌와 뇌질환연구에서 대뇌 좌측 반구에 있는 특정영역이 언어의 결정적인 영역이라고 하였는데 언어습득은 뇌 발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특히 대뇌의 반구편중현상(lateralization)과 대뇌 유연성(brain plasticity theory)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의 발달은 사춘기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언어습득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대뇌 유연도가 높아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유연도가 점차 낮아져 대뇌조직의 언어영역(speech area)이 굳어진 성인은 외국어를 학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여 '4세에서 10세 사이를 제 2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하였다.

Lenneberg(1967)은 언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존재하며 언어습득의 적령기를 2세부터 대뇌의 반구편중현상(lateralization)이 이루어지는 사춘기 이전으로 보았다. 그는 대뇌의 반구편중현상의 시기가 2세 전후로 시작하여 사춘기까지 서서히 일어난다고 보고, 결정적 시기가 지난 12세 전후는 대뇌 조직의 유연성 둔화로 언어습득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춘기 이전의 대뇌 유연성(plasticity)이 어린이가 제 1 언어뿐만 아니라 제 2 언어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며, 제 2 언어의 습득에 있어서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한다(Scovel, 1969).

Halliday(1964)에 의하면 유아들은 어릴수록 언어습득이 쉽다고 한다. 그는 언어습득의 상한선을 10세로 보아 사춘기 이전이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의 최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증거로서 13세까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언어능력이 없었던 미국소녀 Genie의 예를 들었다. Genie는 1970년에 말을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18세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재활치료를 받아 언어를 배웠다. 그러나 최소한의 문법과 함께 두세 단어의 조합으로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모든 구문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Genie의 좌반구는 쇠퇴되어 우반구가 언어와 비언어 모두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뇌의 좌반구 감퇴현상을 인정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언어 자극 제공은 필수적이며, 두뇌구조의 융통성이 상실되기 전에 언어습득을 할 수 있는 환경구성이 되어야한다(Slobin, 1978).

Perskly(1954)는 6~11세를 'bilingual period'로 보고 이 시기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서 어린 아동일수록 더 쉽게 새로운 언어와 완전한 발음을 배운다고 하였다.

6세에서 15세에 이르는 2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령의 차이, 영어의 문법구조를 습득하는 시간, 문법구조의 습득 순서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결정적 시기(critical age)가 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제 2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Fathman, 1975). 즉, 11세에서 15세의 어린이들은 정확한 형태론적 구조(morphological structure)와 구문론적 구조(syntactic structure)를 빠르고 완전하게 습득하는 반면, 6세에서 10세의 어린이들은 정확한 영어발음을 하는데 있어서 월등하다는 것이다.

김희숙(1995)은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 온 시기와 발음습득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6세 이전에 미국에 온 대상은 100%가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을 할 수 있는 반면 12세

이후에 온 대상은 아무도 원어인 화자와 같은 발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발음에 있어서도 역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두뇌의 발달이나 유연성을 고려한다면 사춘기 이전에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4) 사회심리학적 관점

1940년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인간은 경험에 의해 언어를 배우며 주위 사람들의 언어를 모방하여 강화,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습관 형성이라고 하였다.

1799년 프랑스의 아비용(Aveyron) 숲 속에서 발견된 11세경의 소년은 발견당시 아무런 소통욕구가 없었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효율적인 소통법을 습득하지 못했다(Santrock, 1994). 이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환경에서는 언어습득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언어습득을 하는데 있어 모방과 반복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실수에 대한 공포심이나 저항감을 쉽게 극복하므로 외국어를 배우는데 유리하지만 성인의 언어 자아(language ego)는 자기 보호본능이 강하여 실수를 두려워하므로 방어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어린이들에 비해 외국어 학습에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을 일찍 시작하면 학습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며 유아는 자기 나라의 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에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급속한 언

어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Oliva, 1969).

모든 인간은 자아(ego)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defense mechanism)을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되어 가면서, 특히 10대 전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기를 맞이하여, 자아를 보호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억제 심리(inhibition)를 가지려고 하므로 방어적인 억제심리가 낮은 어린 시절에 외국어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Brown, 1980).

Schumann(1975)은 사춘기 이후에 언어학습이 더 어려운 것은 사회적 및 심리적 성숙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사춘기가 되면 자신의 개성이 확실해지면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기준(norm)에 따르기가 어려워진다. 사춘기에 가까워지면 인간은 자존심과 자아가 강해져 이 후 점 점 더 외국어 발화에 있어서 실수를 용납하기 힘들고 자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방어기제가 성숙하기 전 시기인 사춘기 이전에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Rosansky(1975)는 초기 언어 습득에 있어서 어린이는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분석력이 부족한 것이 제 2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린이는 저항감이나 자아의식 없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어를 분석하거나 모국어와 비교하지도 않으므로 외국어 표현 양식이 모국어의 표현 양식과 다른 것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외국어를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Oliva, 1969).

이와 같이 여러 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어 습득의 최적기는 성인시기 보다는 유아기부터 사춘기 이전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조기영어교육 찬성 이론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적

절한 시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 조기 외국어교육에 대한 반대 이론들

조기외국어교육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언어습득장치(LAD)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외국어습득에 대한 분명한 동기, 논리적 사고, 높은 지능과 기억력 등의 요인으로 성인들이 어린이보다 오히려 더 빨리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리학적으로 대뇌의 반구편중화는 5세경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5세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한 예가 많은 것을 볼 때, 대뇌의 편중화 완료시기에 의거하여 외국어교육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Krashen, 1973).

또한 Novoa(1988)등은 사춘기 이후에 제 2 언어를 배운 이중 언어자는 오른쪽 뇌에서 언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오른쪽 뇌도 언어활동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론들이 제기하여 생리학적으로도 조기영어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른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명한 동기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세워 꾸준히 학습하므로 동기를 잃기 쉬운 어린이에 비해 더 유리하다(Brown, 1980).

뿐만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보다 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는 유추에 의해서 외국어를 배우나 어른들은 분석적 사고로 배우게 되므로 어린이가 수년 걸린 학습을 어른은 700~800시간에 가능하다(Rivers, 1981).

Burstall(1978)은 유아와 성인이 과업에 소요된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 성

인이 유아보다 문형과 통사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조기에만 효율적인 외국어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조기외국어교육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의 반대 이론이 많지만 많은 나라에서 조기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언어학습 이론

Skinner(1957)는 언어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였다. 끊임없는 반복 연습과 교사의 강화 활동에 의해 언어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동은 새로운 언어적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이 적절한 강화를 받으면 아동은 그 언어적 자극을 이해하고 발화하기 시작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

이와 반대로 Chomsky(1959)는 언어의 창의적 사용 능력은 후천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기 보다는 인간이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세계의 모든 인종이 쓰는 다양한 언어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법(universal grammar)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는 언어는 행동의 한 형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규칙의 체계이며,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대체로 이 규칙의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법규칙에 관한 지식을 언어능력이라고 하며 이 언어 능력이 어린이의 창의적 언어사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Hutchinson 등(1987)은 언어 학습이란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습득하는 것이며, 학습이란 사람이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그 경험에 관련된 일반적인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고, 그 가설들은

또 다른 경험들에 의해 검증되거나 수정되어 간다고 하였다.

Krashen(1983)은 여러 가지 제 2 언어 습득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들은 말을 들을 때 맥락과 교사의 어법으로 인해 유의미해진 언어를 접하면서 그것을 이해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표현하게 되나 성인들은 규칙을 익혀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적용하여 표현한다. 또한 입력가설에서는 언어 습득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능력을 약간 초과하는 구조를 포함하는 입력, 즉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으며 표현 능력을 기르는 최선의 길은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은 영어 학습이 유쾌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울 때에 정의적 여과 장치가 높아져서 학습자는 학습을 거부한다고 하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어학습의 상황을 아동의 흥미와 발달단계에 적당하게 제시해야 하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에 노출시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그들이 늘 만나고 듣는 어른들의 언어와 행동을 모방하며 언어를 배운다(Stickland & Morrow, 1989).

일정하게 함의된 지식을 모든 유아에게 일관되게 제시하기 보다는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해야 한다(Spodek, 1991).

이맹성(1975)에 의하면 매일 3~4시간씩 외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유아들도 시작 후 6~9개월 내에 그 외국어를 모국어만큼 사용할 수 있고, 유아들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습득은 일어날 수 없다. 즉 아동은 부모나 교사 등의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 가지 언어 형태에 대한 묵시적인 지식을 의미의 이해나 전달과 상응하여 점차 쌓아나간다고 본다(이완기 2000).

언어 사용능력이 생득적인 장치에 의해 습득이 되든지 행동의 반복연습과 강화에 의해서 습득이 되든지 간에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언어사용능력이 없다면 동물들이 언어적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어느 범위이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언어적 입력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선천적 습득 장치가 있어도 언어적 입력을 주는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언어구사능력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이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다만 언제 어떤 식으로 그 언어적 입력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아이들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집중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인과는 다른 학습법이 필요하다.

4. 유아기의 언어 발달적 특성

유아들의 언어습득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출생 후 4~5년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유아들이 복잡한 언어체계를 습득하는 것에 주목하여왔고 많은 연구를 하여 오고 있다. 인간의 언어습득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은 행동주의, 생득주의, 상호작용주의 3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스키너 등의 행동주의의 입장은 적절한 발음을 우연히 구사하게 된 유아가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발음을 반복하여 말하게 되고 습관화되어 결국 학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아는 모방, 강화, 반복, 연습을 통해 언어행동을 습관화하여 언어발달을 한다. 이러한 습관화를 위해 반복적 모방연습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이론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을 사용하는 유아의 창조적 언어표현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유아의 초기언어발달의 근거가 된다.

둘째, 생득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언어습득능력을 타고 난다는 것이다. Chomsky(1959)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 조직적인 언어훈련을 받지 않아도 지능에 상관없이 모두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언어수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언어처리과정만 강조를 하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언어능력을 설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 상호작용주의는 언어습득에 기여하는 환경과 어린이 자신의 역할을 함께 중시한다. Piaget(1952)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과정을 거쳐 인지발달을 이루고 언어발달을 한다고 하였으며 어떻게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구성해나가는지에 중점을 두어 인지발달을 4개의 단계 즉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조작기로 나누었다. 그는 인지발달이 감각운동기에 발달하는 감각·운동적 지능이 언어발달에 기본 요건이 되어 언어발달을 선행한다고 보며 유아가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해 언어가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지므로 자신의 관점에 얽혀 사고한다고 하였다.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활동은 언어와 직접 관련지어 구성되지 않는다. 언어에 의한 상징체계를 다룰 수 있기 전에 인지발달 수준을 따르면서 상징이 표상하고 있는 대상을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Bruner, 1966 ; Piaget&Inhelder, 1969).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언어교육은 인지발달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각운동이나 실제 물건이나 사건 등을 직접 경험하는 등 언어발달을 위해 필요한 인지발달 교수활동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Piaget(1952)에 의하면 아동은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서 언어가 발달하고,

다른 형태의 표현방식이 나타나며, 급속한 개념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유아기의 언어적 특징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말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과 모방 능력이 강하고 발화시의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독백어를 사용하는 등 자기중심적이며 언어를 통해 지적호기심을 나타내므로 풍부한 환경과 자극을 제공해야 하며 이 시기는 언어발달이 구체적 사물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탐색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5. 현대의 유아교육 실정

1980년대 이후 천재아 선호사상과 일찍부터 유아에게 형식적인 교육을 시키자는 온실이론(hothousing)의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유아들에게 일찍부터 학업성취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놀이시간을 축소시키고 어린 연령부터 소위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압력이 부모들에게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이기숙, 1992).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유아들의 조기 영어교육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김은아(1996)에 의하면 유치원에서의 조기 영어교육은 연구대상 교사들이 재직 중인 유치원의 과반수(51.4%)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현재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들 중 일부는 과거에 실시했던 경험(5.7%)과 미래에 실시할 계획(8.6%)이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의 조기 영어교육 시작 시기는 94년 이후(45.9%)가 많아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시작과 그 시기가 일치한다. 유치원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영어전담교사(81.1%)에 의해 주 2~3회(35.1%)내지 4~5회(43.2%), 10~20분(73%), 대그룹활동(86.5%)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조기영어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이상(59.0%)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들은 86.5%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조기영어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간지인 '뉴스메이커' 2003년 07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학습지 회사인 대교-교원-재능교육-웅진닷컴-한솔교육 등 이른바 '학습지 빅5'가 2001년 올린 매출은 2조6천억원이며 이 중 20% 정도인 5천억원이 영어과목 매출액이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집계한 영어학원 만도 전국에 3,000개에 이르며 유아-초등생을 가르치는 영어학원 시장 규모는 4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일간지에 따르면 국내 영어교육 시장은 약 4조~5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조기 영어교육 시장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문 학습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천억원 정도이다(한국경제, 2003. 6. 16).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열기에 편승해 국내 유아영어학원 시장규모는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영어학원, 학습지 등에 노출된 영·유아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일보, 2003, 3, 10).

현재 유아대상 영어교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25%(약 5백억원)정도를 미국, 영국 등에서 수입해오는 원서가 차지하고 있다(한국경제, 2003, 2, 17).

한 어린이영어교육사이트에서 2~3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25~39세 학부모 4천1백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51.7%(2천1백25명)가 영어전문어학원, 학습지, 1대1 방문과외 등을 이용한 조기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녀의 영어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0만원 이하가 67.3%(2천7백82명), 10만~20만원은 20.5%(8백47명), 30만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응답자도 12.2%(4백92명)에 달했다(한국경제, 2003, 1, 22).

서울시내 유치원 수는 98년 1251개이던 것이 2002년엔 1033개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영어유치원 수는 올해 112개로 늘어나 전체 유치원 수의 1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어학원’으로 분류되는 탓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나 장학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2002, 11, 27).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시장은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으며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 양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및 평가 실시

본 연구는 두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사립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학생과 공립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학생들을 제 1그룹으로 설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11개 학급과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3개 학급을 제 2그룹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2. 연구 절차

1) 실험계획

본 연구를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Local Examinations Syndicate(이하 평가원)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평가도구(YLE)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수준을 알아보고 설문을 통하여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따른 영어능력 수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STYLE(Saxoncourt Tests for Young Learners of English)와 UCLES(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의 YLE

평가는 학습자들의 영어능력을 객관식, 주관식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평가 가능성을 알아보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8월 30일까지 YLE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Listening과 Reading & Writing 영어능력을 평가하였다.

평가 후 학생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기타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실험도구로서는 영어능력평가로서 YLE와 설문지조사를 실시한다.

1) YLE

YLE는 Cambridge에서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 초등학생 7~12세를 대상으로 제작된 시험으로서 문제가 영어로만 되어있으며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줄긋기, 단답식, 주관식, 객관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이다.

이 평가도구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의 평가가 있는데 그 중 초등 6학년에게는 총 3단계 중 2단계인 Movers를, 중학교 1학년에게는 3단계 중 3단계인 Flyers를 적용하였다.

(1) Movers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는 Movers를 이용하였다. 평가는 Listening과 Reading & Writing으로 구성되며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이루어져있다. 검사 문항수는 총 66문항으로 청취 25문항, reading & writing 41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listening의 경우 각 Part에 대한 지시문을 1번씩만 들려주고 문제는 Part별로 끝까지 1번을 들려주고 또 반복하여 들려주어 총 2번씩 들려준다. 전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인데 Listening 25문항(5 Part로 구성) 25분, Reading & Writing 41문항(6 Part로 구성)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학생에게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문제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문제지 자체를 수거하였다. 배점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모두 1문항 당 1점씩 계산하여 66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소요시간 및 문항 구성, part 별 특징은 다음에 제시되는 <표 III-1>, <표 III-2>, 및 <표 III-3>과 같다. 평가지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표 III-1> 소요시간 및 문항 구성(Movers)

	length	number of parts	number of items
listening	25 minutes	5	25
reading & writing	30 minutes	6	41
total	55 minutes	11	66

<ⅩⅢ-2> Listening(Movers)

Part	skill focus	input	expected response	numbers of item
1	listening for lexical items and verb phrases	picture and dialogue	match names to a picture by drawing lines	5
2	listening for specified information	gapped text and dialogue	record words or numbers	5
3	listening for lexical items and verb phrases(past tense)	pictures, days of the week and dialogue	match days of the week to pictures by copying the name	5
4	listening for lexical items	picture sets and dialogue	select 1 of 3 pictures by ticking a box	5
5	listening for specified information	picture and dialogue	colour and draw	5

<ⅩⅢ-3> Reading & Writing(Movers)

Part	skill focus	input	expected response	numbers of item
1	understanding definitions	labelled pictures and definitions	matching definitions to a picture by copying a word	6
2	understanding short texts	picture and short texts	write 'yes' or 'no' next to the texts	6
3	identifying appropriate utterances	short dialogues with multiple responses	select best response by writing a letter in a box	6
4	completing a gapped text with 1 word	gapped text with picture cues	write words in gaps	7
5	answering open-ended questions	text, pictures and questions	write 1-3 words	10
6	completing a gapped text with 1 word	gapped text and word sets	complete text by selecting the best word and copying	6

(2) Flyers

중학교 1학년의 검사문항수는 총 75문항으로 청취 25문항, reading & writing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listening의 경우 각 Part에 대한 지시문을 1번씩만 들려주고 문제는 Part별로 끝까지 1번 들려주고 또 반복하여 들려주어 총 2번씩 들려준다. 전체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Listening 25문항(5 Part로 구성) 20분, Reading & Writing 50문항(6 Part로 구성)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학생에게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문제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문제지 자체를 수거하여 채점하였다. 배점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모두 1문항 당 1점씩 계산하여 75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소요시간 및 문항 구성, part 별 특징은 다음에 제시되는 <표 III-4>, <표 III-5>, 및 <표 III-6>과 같다. 평가지는 [부록 3]에 첨부하였다.

<표 III-4> 소요시간 및 문항 구성(Flyers)

	length	number of parts	number of items
listening	appox. 20 minutes	5	25
reading & writing	40 minutes	7	50
total	60 minutes	12	75

<표 III-5> Listening(Flyers)

Part	skill focus	input	expected response	numbers of item
1	listening for lexical items and verb phrases	picture and dialogue	match names to figures in a picture by drawing lines	5
2	listening for specified information	gapped text(form to complete) and dialogue	recording key information	5
3	listening for information	pictures, words and short monologues	match picture and word by writing a letter in a box	5
4	listening for information which identifies the correct picture	picture sets and dialogue	3-optionj multiple choice (pictures; tick the box for the correct picture)	5
5	listening for lexis and position	picture and dialogue	carrying out instructions; location, colouring, drawing and writing	5

<표 III-6> Reading & Writing(Flyers)

Part	skill focus	input	expected response	numbers of item
1	understanding definitions	word set and set of definitions	matching words to definitions	10
2	understanding short texts	1 picture 7 sentence	writing 'yes' or 'no' next to the texts	7
3	identifying appropriate utterances	short dialogues with multiple responses	selecting best response by circling a letter	5
4	reading writing	story -cloze with picture prompts	gap-filling(prompted); one-word answers	6
5	reading writing	story presented through 3 texts with 7 questions	writing 1-4 words answers to questions	7
6	understanding use of grammar and lexis	gapped text and word sets	completing text by selecting the best word and copying	10
7	understanding use of grammar and lexis	gapped text	writing words in gaps	5

2)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설문검사 도구로 본 연구자가 실험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제작한 설문지양식을 사용한다. 설문문항은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학습량,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정도, 영어학습 형태,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도, 영어에 대한 익숙한 정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로 총 20문항을 설정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부록 1]에 첨부한다.

4. 자료 처리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어능력 평가는 각 각 초등학교 6학년 66점, 중학교 1학년 7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실시한 영어능력평가는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한다.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 방법으로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한다.

영어학습형태나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한다.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의 흥미도 및 익숙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10.0 for windows를 사용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 동두천시의 중학교 한 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영어학습 시작연령별 집단의 표본수를 같게 하여 비교 분석하려 하였으나 영어학습을 일찍 시작한 학생의 수가 많지가 않아 표본집단 선택과 통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문제가 영어로만 나오고 문제의 형식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학생들이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공 · 사립간 또는 지역간 표본집단의 영어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본집단의 수준에 맞는 영어능력평가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IV. 연구결과

‘영어능력은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집단과 중학교 1학년 집단의 영어능력시험 점수와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한 결과

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 total 점수

영어공부 시작연령과 영어능력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던 문항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다음 <표 IV-1>, <표 IV-2>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IV-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N	M	SD
5세 이전	1	63.00	
6세부터	6	42.17	19.17
7세부터	6	44.00	18.68
8세부터	8	46.63	14.813
9세부터	45	35.27	16.86
Total	66	38.48	17.31

<표 IV-2>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1860.98	4	465.24	1.61	.183
Within Groups	17625.58	61	288.94		
Total	19486.48	65			

유의 수준 $p < .05$ 에서 집단간 영어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실패하였다. 즉, 영어공부를 시작한 연령에 따른 영어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 점수가 제일 높고 6, 7, 8세에 시작한 경우 평균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으며 9세 이후에 시작한 학생들의 영어능력 평균 점수가 현저히 저하됨을 알 수가 있었다. 이 것은 초등학교 표본의 사례수가 적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2)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 Listening 점수

영어공부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중 청취능력(Listening 점수)간의 관계를 분산분석(ANOVA)한 결과는 다음 <표 IV-3>, <표 IV 4>과 같다.

<표 IV-3>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 능력 관계

	N	M	SD
5세 이전	1	25.00	
6세부터	6	19.50	8.50
7세부터	6	18.83	6.11
8세부터	8	20.88	4.02
9세부터	45	17.40	6.71
Total	66	18.26	6.55

<표 IV-4>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144.61	4	36.15	.835	.508
Within Groups	2640.00	61	43.28		
Total	2784.62	65			

유의수준 $p < .05$ 에서 집단간 영어듣기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실패하였다. 즉, 영어공부를 시작한 연령에 따라 영어 듣기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어 학습을 시작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취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 Reading & Writing 점수

영어공부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중 Reading & Writing 능력간의 관계를 분산분석(ANOVA)한 결과는 다음 <표 IV-5>, <표 IV-6>와 같다.

<표 IV-5>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N	M	SD
5세 이전	1	38.00	
6세부터	6	22.67	11.06
7세부터	6	25.17	12.92
8세부터	8	25.75	11.21
9세부터	45	17.64	11.14
Total	66	20.08	11.65

<표 IV-6>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1040.64	4	260.16	2.04	.100
Within Groups	7781.98	61	127.57		
Total	8822.62	65			

유의 수준 $p < .05$ 에서 집단간 영어읽기, 쓰기 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실패하였다. 즉,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따라 영어 읽기, 쓰기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았고 6, 7, 8세 시작학생들은 평균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으며 9세 이후에 시작한 학생들보다 평균점

수가 높았다.

(4)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로 꿈꿔본 경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이 내재화되어있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하고자 영어로 꿈꾸어본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결과는 교차분석(²)을 통해 다음 <표 IV-7> 같이 나타났다.

<표 IV-7>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로 꿈꿔본 경험 분석

		영어로 꿈꿔본 경험		Total	χ ²	p
		있다	없다			
무응답	도수(비율)			2(3%)	2.26	.689
5세이전	도수		1	1		
	비율(%)		100.0%	100.0%		
6세부터	도수	1	5	6		
	비율(%)	16.7%	83.3%	100.0%		
7세부터	도수		5	5		
	비율(%)		100.0%	100.0%		
8세부터	도수	2	5	7		
	비율(%)	28.6%	71.4%	100.0%		
9세부터	도수	6	39	45		
	비율(%)	13.3%	86.7%	100.0%		
총응답	도수	9	55	64		
	비율(%)	14.1%	85.9%	100.0%		
Total	도수(비율)			66(100%)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로 꿈꿔본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과 영어능력의 내재화의 정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사례수가 적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5)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분석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Total	χ ²	p
		매우 재미있다	약간 재미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재미없다	전혀 재미없다			
5세이전	도수		1				1	11.30	.790
	비율(%)		100.0%				100.0%		
6세부터	도수		1	3	2		6		
	비율(%)		16.7%	50.0%	33.3%		100.0%		
7세부터	도수		1	3	2		6		
	비율(%)		16.7%	50.0%	33.3%		100.0%		
8세부터	도수	1	2	2	2	1	8		
	비율(%)	12.5%	25.0%	25.0%	25.0%	12.5%	100.0%		
9세부터	도수	10	10	9	12	4	45		
	비율(%)	22.2%	22.2%	20.0%	26.7%	8.9%	100.0%		
Total (총응답)	도수	11	15	17	18	5	66		
	비율(%)	16.7%	22.7%	25.8%	27.3%	7.6%	100.0%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 정도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표 IV-9>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 정도

		영어에 대한 만족도					Total	* 2	p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도수(비율)						3(4.5%)	13.29	.651
5세이전	도수				1		1		
	비율(%)				100.0%		100.0%		
6세부터	도수	1		3	2		6		
	비율(%)	16.7%		50.0%	33.3%		100.0%		
7세부터	도수			2	2	1	5		
	비율(%)			40.0%	40.0%	20.0%	100.0%		
8세부터	도수		1	2	3	1	7		
	비율(%)		14.3%	28.6%	42.9%	14.3%	100.0%		
9세부터	도수	2	7	23	6	6	44		
	비율(%)	4.5%	15.9%	52.3%	13.6%	13.6%	100.0%		
총응답	도수	3	8	30	14	8	63		
	비율(%)	4.8%	12.7%	47.6%	22.2%	12.7%	100.0%		
Total	도수(비율)						66(100%)		

영어학습 시작 연령에 따른 영어에 대한 만족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10>와 같다. 질문의 내용은 영어로 말을 하거나 학습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것으로 그 응답을 빈도분석 하였다. 영어로 공부하거나 말할 때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2%, 대체로 좋다가 25.4%, 매우 좋다가 14.3%로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나쁘다	3	4.8	4.8
대체로 나쁘다	4	6.3	11.1
보통	31	49.2	60.3
대체로 좋다	16	25.4	85.7
매우 좋다	9	14.3	100.0
총응답	63	95.5	
무응답	3	4.5	
Total	66	100.0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IV-11>처럼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분석

		영어에 대한 거부감					Total	χ ²	p
		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쁘다	보통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무응답	도수(비율)						3(4.5%)	7.96	.949
5세이전	도수				1		1		
	비율(%)				100.0%		100.0%		
6세부터	도수		1	4	1		6		
	비율(%)		16.7%	66.7%	16.7%		100.0%		
7세부터	도수			3	1	1	5		
	비율(%)			60.0%	20.0%	20.0%	100.0%		
8세부터	도수			4	2	1	7		
	비율(%)			57.1%	28.6%	14.3%	100.0%		
9세부터	도수	3	3	20	11	7	44		
	비율(%)	6.8%	6.8%	45.5%	25.0%	15.9%	100.0%		
총응답	도수	3	4	31	16	9	63		
	비율(%)	4.8%	6.3%	49.2%	25.4%	14.3%	100.0%		
Total	도수(비율)						66(100%)		

(8) 영어의 활용 정도

영어학습 시작 연령과 영어활용능력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친구에게나 집에서 영어로 말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통계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IV-12> 영어의 활용 정도

	도수	비율(%)	누적 비율(%)
전혀 안 함	12	18.8	18.8
않는 편	21	32.8	51.6
부분적으로	24	37.5	89.1
가능한 한 영어로	7	10.9	100.0
총응답	64	97.0	
무응답	2	3.0	
Total	66	100.0	

영어공부 시작연령과 집에서 영어로 말하는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13>와 같다.

<표 IV-13>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의 활용 정도 분석

		영어로 말하는 정도				Total	χ ²	p
		전혀 안함	않는 편	부분적으로	가능한 한 영어로			
무응답	도수(비율)					2(3%)	7.62	.818
5세이전	도수			1		1		
	비율(%)			100.0%		100.0%		
6세부터	도수	3	2	1		6		
	비율(%)	50.0%	33.3%	16.7%		100.0%		
7세부터	도수	1	1	2	1	5		
	비율(%)	20.0%	20.0%	40.0%	20.0%	100.0%		
8세부터	도수	1	3	2	1	7		
	비율(%)	14.3%	42.9%	28.6%	14.3%	100.0%		
9세부터	도수	7	15	18	5	45		
	비율(%)	15.6%	33.3%	40.0%	11.1%	100.0%		
총응답	도수	12	21	24	7	64		
	비율(%)	18.8%	32.8%	37.5%	10.9%	100.0%		
Total	도수(비율)					66(100%)		

영어공부 시작 연령에 따른 집에서 영어로 말하는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영어학습의 사교육 이용 현황

(1) 학교 외 장소의 영어학습 상황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학습을 하는 경우는 <표 IV-14>과 같이 응답한 학생의 80.6%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고 19.4%만이 학교에서만 영어를 학습한다고 응답을 하여 초등학교 역시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학교 외 장소의 영어 학습 여부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네	50	80.6	80.6
아니오	12	19.4	100.0
총응답	62	93.9	
무응답	4	6.1	
Total	66	100.0	

다음 <표 IV-15>는 학생들을 영어능력 시험 점수별로 나누어 상위 30%와 하위 30%의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영어 학습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상위집단은 95.5%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따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72.7%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따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학교 외의 장소에서 영어학습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어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V-15> 수준별 학교 외 장소의 영어 학습 여부

	다른 장소에서 공부 여부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다른 장소에서 공부 한다	21	95.5	95.5
	다른 장소에서 공부 안 한다	1	4.5	100.0
	Total	22	100.0	
하위 30% 집단	다른 장소에서 공부 한다	16	72.7	72.7
	다른 장소에서 공부 안 한다	6	27.3	100.0
	Total	22	100.0	

(2)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른 영어활용능력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문항과 영어능력점수 결과와 분산분석(ANOVA)한 결과는 <표 IV-16>, <표 IV-17>과 같다.

<표 IV-16>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N	M	SD
1년이하	17	29.82	17.79
1~2년	12	33.42	16.68
2~3년	7	48.86	5.37
3~4년	14	41.43	14.79
4~5년	5	43.80	14.67
5년이상	7	57.00	4.69
총응답	62	39.48	16.73
무응답	4		
Total	66		

<표 IV-17>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4937.01	5	987.40	4.56	.001
Within Groups	12134.47	56	216.69		
Total	17071.48	61			

유의 수준 $p < .01$ 에서 집단간 영어능력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즉,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라서는 영어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를 공부한 기간이 길수록 영어능력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3)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의 관계에 대한 문항의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영어에 대한 흥미					Total	* 2	p
		매우 재미있다	약간 재미있다	보통이다	별로 재미없다	전혀 재미없다			
무응답	도수(비율)						4(6.1%)	23.70	.256
1년 이하	도수	5	5	2	2	3	17		
	비율(%)	29.4%	29.4%	11.8%	11.8%	17.6%	100.0%		
1~2년	도수	3	1	6	2		12		
	비율(%)	25.0%	8.3%	50.0%	16.7%		100.0%		
2~3년	도수		3	2	2		7		
	비율(%)		42.9%	28.6%	28.6%		100.0%		
3~4년	도수	2	2	4	5	1	14		
	비율(%)	14.3%	14.3%	28.6%	35.7%	7.1%	100.0%		
4~5년	도수		2		3		5		
	비율(%)		40.0%		60.0%		100.0%		
5년 이상	도수	1	2	3	1		7		
	비율(%)	14.3%	28.6%	42.9%	14.3%		100.0%		
총응답	도수	11	15	17	15	4	62		
	비율(%)	17.7%	24.2%	27.4%	24.2%	6.5%	100.0%		
Total	도수(비율)						66(100%)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를 교차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기타

(1) 영어공부 횟수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상위 30%)의 영어공부 횟수를 보면 다음 <표 IV-19>과 같다.

<표 IV-19> 상위권 학생들의 주당 영어공부 횟수

	도수	비율(%)	누적 비율(%)
2번	8	38.1	38.1
3번	5	23.8	61.9
4번	1	4.8	66.7
5번이상	7	33.3	100.0
총응답	21	95.5	
무응답	1	4.5	
Total	22	100.0	

1주일에 영어학습을 몇 번이나 하는지에 대한 설문지의 답변을 보면 영어학습 횟수가 영어성적에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영어 성적에 따른 영어학습 횟수를 보면 <표 IV-20>에서처럼 상위 30%의 학생들 중 1주에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63.6%였고 하위 30%의 학생들은 54.6%였다.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어학습의 횟수 자체가 영어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수준별 영어공부 횟수

	영어 공부횟수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1번			
	2번	8	36.4	36.4
	3번	6	27.3	63.6
	4번	1	4.5	68.2
	5번 이상	7	31.8	100.0
	Total	22	100.0	
하위 30% 집단	1번	5	22.7	22.7
	2번	5	22.7	45.5
	3번	6	27.3	72.7
	4번	2	9.1	81.8
	5번 이상	4	18.2	100.0
	Total	22	100.0	

(2) 영어 공부시간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상위 30%)의 영어공부 시간을 빈도분석하여 보면 다음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상위권 학생들의 1일 영어공부 시간

	도수	비율(%)	누적 비율(%)
30분정도	4	19.0	19.0
40분정도	3	14.3	33.3
50분이상	14	66.7	100.0
총응답	21	95.5	
무응답	1	4.5	
Total	22	100.0	

상위 30%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30분 이상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0분 이상을 영어학습에 투자한다는 응답이 66.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 <표 IV-22>은 영어 성적별 영어 공부 시간으로 상위 30%의 학생

들과 하위 30%의 학생들의 영어공부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상위권의 100%의 학생들과 하위 54.6%의 학생들이 하루 30분 이상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능력점수가 상위권의 학생들은 하루 30분 이상 영어학습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수준별 영어공부 시간

	영어 공부 시간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10분이하			
	20분정도			
	30분정도	4	18.2	18.2
	40분정도	3	13.6	31.8
	50분이상	15	68.2	100.0
	Total	22	100.0	
하위 30% 집단	10분이하	4	18.2	18.2
	20분정도	6	27.3	45.5
	30분정도	4	18.2	63.6
	40분정도	4	18.2	81.8
	50분이상	4	18.2	100.0
	Total	22	100.0	

(3)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에 대한 설문 의 빈도분석결과는 다음 <표 IV-23>와 같다.

<표 IV-23>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부모님이 시켜서	22	34.9	34.9
학교서 배워서	3	4.8	39.7
친구가하니까	2	3.2	42.9
재미있을 것 같아서	6	9.5	52.4
배워야될 것 같아서	30	47.6	100.0
총응답	63	95.5	
무응답	3	4.5	
Total	66	100.0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영어학습을 하게 된다는 응답이 47.6%였고 ‘부모님이 시키셔서’라는 응답이 34.9%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많이 사용하는 영어 학습 방법

<표 IV-24>처럼 학생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학습 방법으로는 학원교재가 45.5%, 멀티미디어 교재 36.4%로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학원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24> 많이 사용하는 영어학습 방법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멀티미디어	24	36.4	36.4
학원교재	30	45.5	81.8
그림단어카드	2	3.0	84.8
기타	10	15.2	100.0
Total	66	100.0	

(5)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공부 방법

<표 IV-25>와 같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공부 방법으로는 게임이나 놀이가 57.1%, 챗트 노래 등이 20.6%를 차지하였다.

<표 IV-25>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공부 방법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동화	6	9.5	9.5
멀티미디어	5	7.9	17.5
게임놀이	36	57.1	74.6
챗트노래	13	20.6	95.2
기타	3	4.8	100.0
총응답	63	95.5	
무응답	3	4.5	
Total	66	100.0	

(6)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자주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에 대해, 따돌리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표 IV-26>와 같이 따돌리지 않는다가 66.7%, 부러워하고 좋아한다가 25.4%로, 즉 92.1%가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IV-26>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도수	비율(%)	누적 비율(%)
조금 따돌린다	5	7.9	7.9
따돌리지 않는다	42	66.7	74.6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16	25.4	100.0
총응답	63	95.5	
무응답	3	4.5	
Total	66	100.0	

다음 <표 IV-27>은 영어성적이 상위 30%이내에 있는 학생들과 하위 30%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를 사용했을 때 친구들이 놀리는가’에 대한 정도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9.5%가 영어를 자주 사용하였을 때 친구들이 따돌린다고 응답하였고 하위권 학생들은 5%만이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을 따돌린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도 중학교1학년의 결과와 같이 영어학습의 사회문화적, 정의적 요인인 ‘peer pressure’로 인한 학습 저하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위권 학생들은 ‘peer pressure’를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IV-27> 수준별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따돌리는 정도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따돌린다			
	조금 따돌린다	2	9.5	9.5
	따돌리지 않는다	14	66.7	76.2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5	23.8	100.0
	총응답	21	95.5	
	무응답	1	4.5	
	Total	22	100.0	
하위 30% 집단	따돌린다			
	조금 따돌린다	1	5.0	5.0
	따돌리지 않는다	13	65.0	70.0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6	30.0	100.0
	총응답	20	91.0	
	무응답	2	9.0	
	Total	22	100.0	

(7)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 친구들이 놀리거나 따돌리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표 IV-28>처럼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67.2%, 부러워하고 좋아한다는 응답이 26.6%로 93.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V-28>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놀리고 따돌린다	1	1.6	1.6
조금 놀리고 따돌린다	3	4.7	6.3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음	43	67.2	73.4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17	26.6	100.0
총응답	64	97.0	
무응답	2	3.0	
Total	66	100.0	

다음은 영어성적이 상위 30%이내에 있는 학생들과 하위 30%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들을 따돌리는가’의 정도이다. 분석

결과 <표 IV-29>과 같이 상위권 학생들은 14.3%가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들을 따돌린다고 응답하였고 하위권 학생들은 4.8%만이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을 따돌린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번 문항은 상위권학생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영어발음 좋은 친구를 따돌리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의 문항과 유사하게 영어 학습의 사회문화적 정의적 요인인 ‘peer pressure’로 인한 학습저하를 예상하였었는데 상위권 학생들보다 하위권 학생들이 ‘peer pressure’를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IV-29> 수준별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따돌리는 정도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놀리고 따돌린다			
	조금 놀리고 따돌린다	3	14.3	14.3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음	16	76.2	90.5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2	9.5	100.0
	총응답	21	95.5	
	무응답	1	4.5	
	Total	22	100.0	
하위 30% 집단	놀리고 따돌린다	1	4.8	4.8
	조금 놀리고 따돌린다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음	12	57.1	61.9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8	38.1	100.0
	총응답	21	95.5	
	무응답	1	4.5	
	Total	22	100.0	

2.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결과

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 total 점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던 질문에서 <표 IV-30>, <표 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분산분석(ANOVA) 한 결과 유의 수준 $p < .01$ 에서 집단간 영어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성공하였다. 즉, 영어공부를 시작한 연령에 따라 영어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세 이전과 6세, 7세, 8세, 9세에서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영어점수가 22.44, 28.56, 28.29, 24.17, 20.53으로 5세 이전에 시작한 학생과 8세, 9세 이후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평균은 비슷하게 나왔으나 6세, 7세부터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이로부터 영어학습은 시작연령이 어릴수록 영어능력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너무 어린 연령층의 아동에게 영어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6~7세 정도의 아동에게 영어학습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0>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N	M	SD
5세이전	9	22.44	12.21
6세부터	9	28.56	12.14
7세부터	17	28.29	16.75
8세부터	30	24.17	11.50
9세부터	258	20.53	9.04
Total	324	21.55	10.17

<표 IV-31>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1693.36	4	423.34	4.25	.002
Within Groups	31688.33	318	99.65		
Total	33381.69	322			

(2)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 Listening 점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 청취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질문에서 <표 IV-32>, <표 IV-33>와 같이 결과가 나왔다. 분산분석(ANOVA)을 통한 결과 분석에서 유의 수준 $p < .05$ 에서 집단간 영어듣기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성공하였다. 즉,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따라 영어 듣기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 평균이 7.22, 6세는 10.22, 7세는 10.00, 8세는 8.97, 9세는 7.23으로 총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무 어린 연령 즉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나 8, 9세부터 시작한 경우는 평균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 7세에 시작한 경우는 유의미한 영어청취능력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32>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능력 관계

	N	M	SD
5세이전	9	7.22	5.78
6세부터	9	10.22	5.74
7세부터	17	10.00	6.10
8세부터	30	8.97	5.17
9세부터	258	7.23	4.70
Total	324	7.62	4.92

<표 IV-33>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청취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252.56	4	63.14	2.65	.033
Within Groups	7579.59	318	23.84		
Total	7832.16	322			

(3)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 관계 - Reading & Writing 점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결과는 <표 IV-34>, <표 IV-35>과 같다. 결과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의 수준 $p < .05$ 에서 집단간 영어읽기, 쓰기 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성공하였다. 즉,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따라 영어읽기, 쓰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의 평균은 15.22, 6세는 18.00, 7세는 18.29, 8세는 15.40, 9세부터는 13.61로 5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나 8세 이후에 시작한 경우의 읽기 및 쓰기능력은 현저한 차이가 없었으나 6세나 7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34>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N	M	SD
5세이전	9	15.22	7.03
6세부터	9	18.00	7.00
7세부터	17	18.29	11.61
8세부터	30	15.40	7.31
9세부터	258	13.61	6.31
Total	324	14.18	6.89

<표 IV-35>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읽기 및 쓰기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556.57	4	139.14	3.0	.019
Within Groups	14741.53	318	46.36		
Total	15298.10	322			

(4) 영어학습 시작 연령과 영어로 꿈꿔본 경험

영어학습 시작 연령과 영어능력이 내재화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영어로 꿈꾸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결과는 교차분석(²)을 통해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33.3%가 영어로 꿈을 꾸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세에 시작한 경우는 55.6%, 7세에 시작한 경우는 21.4%, 8세에 시작한 경우는 20.7%, 9세 이후는 12.1%로 6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영어로 꿈을 꾸어본 경험이 제일 많았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어로 꿈을 꾸어본 경험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6세에 시작한 경우보다 영어로 꿈꾸어 본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표 IV-36>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로 꿈꿔본 경험 분석

		영어로 꿈꿔본 경험		Total	* 2	p
		있다	없다			
무응답	도수(비율)			15(4.6%)	16.61	.002
5세이전	도수	3	6	9		
	비율(%)	33.3%	66.7%	100.0%		
6세부터	도수	5	4	9		
	비율(%)	55.6%	44.4%	100.0%		
7세부터	도수	3	11	14		
	비율(%)	21.4%	78.6%	100.0%		
8세부터	도수	6	23	29		
	비율(%)	20.7%	79.3%	100.0%		
9세부터	도수	30	218	248		
	비율(%)	12.1%	87.9%	100.0%		
총응답	도수	47	262	309		
	비율(%)	15.2%	84.8%	100.0%		
Total	도수(비율)			324(100%)		

(5)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영어학습 시작 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결과는 교차분석(χ^2)을 통해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 다른 연령층에 시작한 경우보다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영어학습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너무 어린 연령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IV-37>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분석

		영어에 대한 흥미					Total	χ ²	p
		매우 재미있다	약간 재미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재미없다	전혀 재미없다			
무응답	도수(비율)						2(.6%)	17.05	.382
5세이전	도수	1	2	2	1	3	9		
	비율(%)	11.1%	22.2%	22.2%	11.1%	33.3%	100.0%		
6세부터	도수	2	3	2	2		9		
	비율(%)	22.2%	33.3%	22.2%	22.2%		100.0%		
7세부터	도수	5	6	4	1	1	17		
	비율(%)	29.4%	35.3%	23.5%	5.9%	5.9%	100.0%		
8세부터	도수	5	9	8	5	3	30		
	비율(%)	16.7%	30.0%	26.7%	16.7%	10.0%	100.0%		
9세부터	도수	26	78	94	36	23	257		
	비율(%)	10.1%	30.4%	36.6%	14.0%	8.9%	100.0%		
총응답	도수	39	98	110	45	30	322		
	비율(%)	12.1%	30.4%	34.2%	14.0%	9.3%	100.0%		
Total	도수(비율)						324(100%)		

(6) 영어공부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 정도

영어학습 시작 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38>와 같다. 결과는 교차분석(χ²)을 통해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절반정도는 영어학습에 대해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목할 만한 것은 6, 7세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 후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학습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표 IV-38>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 정도

		영어에 대한 만족도					Total	* 2	p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도수(비율)						7(2.2%)	42.68	.000
5세이전	도수			5	2	2	9		
	비율(%)			55.6%	22.2%	22.2%	100.0%		
6세부터	도수			7	1	1	9		
	비율(%)			77.8%	11.1%	11.1%	100.0%		
7세부터	도수		2	4	4	6	16		
	비율(%)		12.5%	25.0%	25.0%	37.5%	100.0%		
8세부터	도수		4	12	11	2	29		
	비율(%)		13.8%	41.4%	37.9%	6.9%	100.0%		
9세부터	도수	18	24	135	67	10	254		
	비율(%)	7.1%	9.4%	53.1%	26.4%	3.9%	100.0%		
총응답	도수	18	30	163	85	21	317		
	비율(%)	5.7%	9.5%	51.4%	26.8%	6.6%	100.0%		
Total	도수(비율)						324(100%)		

(7)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39>, <표 IV-40>과 같다. 질문의 내용은 영어로 말하거나 학습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것인데 결과는 교차분석(χ^2)을 통해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7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영어에 만족하는 편이며 8세 이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 영어에 대한 호감이 급감하며 거부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나쁘다	7	2.2	2.2
대체로 나쁘다	13	4.1	6.3
보통	181	57.1	63.4
대체로 좋다	85	26.8	90.2
매우 좋다	31	9.8	100.0
총응답	317	97.8	
무응답	7	2.2	
Total	324	100.0	

<표 IV-40>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분석

		영어에 대한 호감 및 거부감					Total	χ ²	p
		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쁘다	보통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무응답	도수(비율)						6(1.9%)	30.98	.014
5세 이전	도수		2	3	1	3	9		
	비율(%)		22.2%	33.3%	11.1%	33.3%	100.0%		
6세부터	도수			4	3	2	9		
	비율(%)			44.4%	33.3%	22.2%	100.0%		
7세부터	도수	1		8	2	5	16		
	비율(%)	6.3%		50.0%	12.5%	31.3%	100.0%		
8세부터	도수	1		17	9	2	29		
	비율(%)	3.4%		58.6%	31.0%	6.9%	100.0%		
9세부터	도수	5	11	150	70	19	255		
	비율(%)	2.0%	4.3%	58.8%	27.5%	7.5%	100.0%		
총응답	도수	7	13	182	85	31	318		
	비율(%)	2.2%	4.1%	57.2%	26.7%	9.7%	100.0%		
Total	도수(비율)						324(100%)		

이 경우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시작한 학생들이 ‘매우 나쁘다’거나 ‘대체로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

3.4%, 6.3%였던 것에 비해 22.2%나 되었고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33.3%로 나타났다.

(8) 영어의 활용 정도

영어학습 시작 연령과 영어활용능력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친구에게나 집에서 영어로 말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결과는 <표 IV-41>, <표 IV-42>과 같다. 결과는 교차분석(²)을 통해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67.9%가 영어로 전혀 말을 안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32.1%만이 영어를 사용하여 말을 한다고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영어학습 시작연령이 낮을수록 영어를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영어학습 시작연령이 높을수록 영어를 전혀 '사용 안 함'에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

<표 IV-41> 영어의 활용 정도

	도수	비율(%)	누적 비율(%)
전혀 안 함	76	24.1	24.1
않는 편	138	43.8	67.9
부분적으로	91	28.9	96.8
가능한 한 영어로	10	3.2	100.0
총응답	315	97.2	
무응답	9	2.8	
Total	324	100.0	

<표 IV-42> 영어학습 시작연령에 따른 영어의 활용 정도 분석

		영어로 말하는 정도				Total	* 2	p
		전혀 안함	않는 편	부분적 으로	가능한 한 영어로			
무응답	도수(비율)					8(2.5%)	18.75	.095
5세 이전	도수		4	5		9		
	비율(%)		44.4%	55.6%		100.0%		
6세부터	도수		4	4	1	9		
	비율(%)		44.4%	44.4%	11.1%	100.0%		
7세부터	도수	4	4	5	2	15		
	비율(%)	26.7%	26.7%	33.3%	13.3%	100.0%		
8세부터	도수	6	12	11		29		
	비율(%)	20.7%	41.4%	37.9%		100.0%		
9세부터	도수	66	115	66	7	254		
	비율(%)	26.0%	45.3%	26.0%	2.8%	100.0%		
총응답	도수	76	139	91	10	316		
	비율(%)	24.1%	44.0%	28.8%	3.2%	100.0%		
Total	도수(비율)					324(100%)		

2) 영어학습의 사교육 이용 현황

(1) 학교 외 장소의 영어학습 상황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학습을 하는 경우는 <표 IV-43>와 같이 응답한 학생의 77.7%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학습을 하고 있고 22.3%만이 학교에서만 영어를 학습한다고 응답을 하여 우리나라의 영어학습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표 IV-43> 학교 외 장소에서의 영어학습 여부

	도수	비율(%)	누적 비율(%)
이용	248	77.7	77.7
이용 안 함	71	22.3	100.0
총응답	319	98.4	
무응답	5	1.6	
Total	324	100.0	

다음 <표 IV-44>는 학생들을 영어능력 시험 점수별로 나누어 상위 30%와 하위 30%의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영어 학습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상위집단은 84.2%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따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 또한 74.5%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따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학교 외의 장소에서 영어학습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어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V-44> 수준별 학교 외 장소의 영어학습 여부

	다른 장소에서 공부 여부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다른 장소에서 공부 한다	85	84.2	84.2
	다른 장소에서 공부 안 한다	16	15.8	100.0
	총응답	101	93.5	
	무응답	7	6.5	
	Total	108	100.0	
하위 30% 집단	다른 장소에서 공부 한다	76	74.5	74.5
	다른 장소에서 공부 안 한다	26	25.5	100.0
	총응답	102	94.4	
	무응답	6	5.6	
	Total	108	100.0	

(2) 학교 외 장소 공부 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른 영어활용능력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문항과 영어능력점수의 결과는 <표 IV-45>, <표

IV-46>과 같다. 결과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의 수준 $p < .01$ 에서 집단간 영어능력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즉,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라 영어 능력에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외 장소에서 영어를 공부한 기간이 길수록 영어능력점수가 높았다.

<표 IV-45>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N	M	SD
1년 이하	85	19.68	8.36
1~2년	70	20.29	9.24
2~3년	43	22.23	10.35
3~4년	39	20.00	8.02
4~5년	16	23.25	11.47
5년 이상	33	31.24	13.62
총응답	286	21.79	10.30
무응답	38		
Total	324		

<표 IV-46>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능력 관계 분석

	SS	df	MS	F	p
Between Groups	3651.97	5	730.39	7.66	.000
Within Groups	26695.44	280	95.34		
Total	30347.41	285			

(3)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학교 외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의 관계에 대한 문항의 결과는 <표 IV-47>과 같다. 결과는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 이외의 타 장소에서 공부한 기간이 길수록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학교 외 장소 공부기간에 따른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					Total	* 2	p		
		매우 재미있다	약간 재미있다	보통이 다	별로 재미없다	전혀 재미없다					
무응답	도수(비율)						39(12%)	33.03	.033		
1년 이하	도수	3	23	37	10	12	85				
	비율(%)	3.5%	27.1%	43.5%	11.8%	14.1%	100.0%				
1~2년	도수	8	24	23	11	3	69				
	비율(%)	11.6%	34.8%	33.3%	15.9%	4.3%	100.0%				
2~3년	도수	9	11	17	5	1	43				
	비율(%)	20.9%	25.6%	39.5%	11.6%	2.3%	100.0%				
3~4년	도수	5	13	11	7	3	39				
	비율(%)	12.8%	33.3%	28.2%	17.9%	7.7%	100.0%				
4~5년	도수	4	7	5			16				
	비율(%)	25.0%	43.8%	31.3%			100.0%				
5년 이상	도수	9	8	8	4	4	33				
	비율(%)	27.3%	24.2%	24.2%	12.1%	12.1%	100.0%				
총응답	도수	38	86	101	37	23	285				
	비율(%)	13.3%	30.2%	35.4%	13.0%	8.1%	100.0%				
Total	도수(비율)						324(100%)				

3) 기타

(1) 영어학습 횟수

학생들의 영어학습 횟수는 다음 <표 IV-48>와 같다. 1주일에 3회를 학습하는 경우가 32.3%, 5회 이상인 학생들이 29.1%, 4회 이상인 학생들이 17.7%, 1회인 학생들이 10.8%, 2회인 학생들이 10.1%로 79.1%의 학생들이 1주일에 3회 이상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주당 영어학습 횟수

	도수	비율(%)	누적 비율(%)
1번	34	10.8	10.8
2번	32	10.1	20.9
3번	102	32.3	53.2
4번	56	17.7	70.9
5번 이상	92	29.1	100.0
총응답	316	97.5	
무응답	8	2.5	
Total	324	100.0	

영어 성적별 영어학습 횟수를 보면 <표 IV-49>과 같이 상위 30%의 학생들 중 87%가 1주일에 3회 이상 영어학습을 하였으며 하위 30%의 학생들 중 73.5%가 1주일에 3회 이상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학습의 횟수 자체는 영어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49> 수준별 영어학습 횟수

	영어 공부 횟수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1번	4	4.0	4.0
	2번	9	9.1	13.1
	3번	35	35.4	48.5
	4번	15	15.2	63.6
	5번 이상	36	36.4	100.0
	총응답	99	91.7	
	무응답	9	8.3	
	Total	108	100.0	
하위 30% 집단	1번	19	18.6	18.6
	2번	8	7.8	26.5
	3번	32	31.4	57.8
	4번	19	18.6	76.5
	5번 이상	24	23.5	100.0
	총응답	102	94.4	
	무응답	6	5.6	
	Total	108	100.0	

(2) 영어학습 시간

학생들의 1일 영어 학습시간을 보면 다음 <표 IV-5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50분 이상인 학생들이 29.7%, 40분정도가 26.6%, 30분정도가 16.8%로 73.1%의 학생들이 하루에 30분 이상을 영어학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1일 영어학습 시간

	도수	비율(%)	누적 비율(%)
10분 이하	46	14.6	14.6
20분정도	39	12.3	26.9
30분정도	53	16.8	43.7
40분정도	84	26.6	70.3
50분 이상	94	29.7	100.0
총응답	316	97.5	
무응답	8	2.5	
Total	324	100.0	

다음 <표 IV-51>는 영어 성적별 영어학습 시간으로 상위 30%의 학생들과 하위 30%의 학생들의 영어학습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상위 85%의 학생들과 하위 65%의 학생들이 하루 30분 이상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위의 문항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하루 30분 이상 학습시간 자체가 영어능력향상에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표 IV-51> 수준별 영어학습 시간

	영어 공부 시간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10분 이하	10	9.9	9.9
	20분정도	6	5.9	15.8
	30분정도	18	17.8	33.7
	40분정도	30	29.7	63.4
	50분 이상	37	36.6	100.0
	총응답	101	93.5	
	무응답	7	6.5	
	Total	108	100.0	
하위 30% 집단	10분 이하	18	18.0	18.0
	20분정도	17	17.0	35.0
	30분정도	13	13.0	48.0
	40분정도	28	28.0	76.0
	50분 이상	24	24.0	100.0
	총응답	100	92.5	
	무응답	8	7.5	
	Total	108	100.0	

(3) 영어를 학습하게 되는 동기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게 되는 동기에 대한 결과는 <표 IV-52>과 같이 ‘부모님이 시켜서’가 32.7%, ‘학교에서 배우니까’가 31.2%, ‘배워야 할 것 같아서’가 26.5%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52> 영어를 학습하게 되는 동기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부모님이 시켜서	105	32.7	32.7
학교서 배워서	100	31.2	63.9
친구가하니까	7	2.2	66.0
재미있을 것 같아서	24	7.5	73.5
배워야될 것 같아서	85	26.5	100.0
총응답	321	91.0	
무응답	3	.9	
Total	324	100.0	

(4) 많이 사용하는 영어학습 방법

학생들이 현재 영어학습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 IV-53>처럼 학원교재가 56.8%로 가장 많았고 멀티미디어가 29%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학원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많이 사용하는 영어학습 방법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동화책	10	3.2	3.2
멀티미디어	92	29.0	32.2
학원교재	180	56.8	89.0
그림단어카드	3	.9	89.9
기타	32	10.1	100.0
총응답	317	97.8	
무응답	7	2.2	
Total	324	100.0	

(5)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공부 방법

학생들이 흥미 있다고 느끼는 영어학습법에 대해서는 <표 IV-54>처럼 게임이나 놀이를 이용하는 것이 45.3%, 챗트와 노래를 이용하는 것이 21.8%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54>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어학습 방법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동화	45	14.2	14.2
멀티미디어	50	15.8	30.1
게임놀이	143	45.3	75.3
챗트노래	69	21.8	97.2
기타	9	2.8	100.0
총응답	316	97.5	
무응답	8	2.5	
Total	324	100.0	

(6)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친구에 대해서 따돌리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표 IV-26>처럼 ‘따돌리지 않는다’가 72.5%였고, ‘부러워하고 좋아한다’가 19.8%로 92.3%의 학생이 자주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IV-55>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따돌린다	5	1.6	1.6
조금 따돌린다	19	6.1	7.7
따돌리지 않는다	227	72.5	80.2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62	19.8	100.0
총응답	313	96.6	
무응답	11	3.4	
Total	324	100.0	

다음 <표 IV-56>은 영어성적이 상위 30%이내에 있는 학생들과 하위 30%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를 사용했을 때 친구들이 놀리는가’의 정도이다. 분석결과 상위권 학생들은 12.3%가 영어를 자주 사용하였을 때 친구들이 따돌린다고 응답하였고 하위권 학생들은 3%만이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을 따돌린다는 응답을 하였다.

영어학습의 사회문화적 정의적 요인인 ‘peer pressure’로 인한 학습저하를 예상하였었는데 의외로 하위권 학생들은 ‘peer pressure’를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IV-56> 수준별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에 대한 따돌림

	따돌리는 정도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따돌린다	4	4.1	4.1
	조금 따돌린다	8	8.2	12.2
	따돌리지 않는다	70	71.4	83.7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16	16.3	100.0
	총응답	98	90.7	
	무응답	10	9.3	
	Total	108	100.0	
하위 30% 집단	따돌린다	1	1.0	1.0
	조금 따돌린다	2	2.0	3.1
	따돌리지 않는다	71	72.4	75.5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24	24.5	100.0
	총응답	98	90.7	
	무응답	10	9.3	
	Total	108	100.0	

(7)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해 놀리거나 따돌리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표 IV-57>처럼 역시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62.1%, 부러워하고 좋아한다는 응답이 28.2%로 90.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V-57>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도수	비율(%)	누적 비율(%)
놀리고 따돌린다	6	1.9	1.9
조금 놀리고 따돌린다	24	7.8	9.7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음	192	62.1	71.8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87	28.2	100.0
총응답	309	95.4	
무응답	15	4.6	
Total	324	100.0	

다음 <표 IV-58>는 영어성적이 상위 30%이내에 있는 학생들과 하위 30%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들을 따돌리는가’의 정도이다. 분석결과 상위권 학생들은 13.4%가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들을 따돌린다고 응답하였고 하위권 학생들은 8%만이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을 따돌린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번 문항 또한 위의 문항과 비슷하게 영어학습의 사회문화적, 정의적 요인인 ‘peer pressure’로 인한 학습저하를 예상하였었는데 상위권 학생들 보다 하위권 학생들이 ‘peer pressure’를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IV-58> 수준별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한 따돌림

	따돌리는 정도	도수	비율(%)	누적비율(%)
상위 30% 집단	놀리고 따돌린다	4	4.1	4.1
	조금 놀리고 따돌린다	9	9.3	13.4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음	55	56.7	70.1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29	29.9	100.0
	총응답	97	89.8	
	무응답	11	10.2	
	Total	108	100.0	
하위 30% 집단	놀리고 따돌린다	1	1.0	1.0
	조금 놀리고 따돌린다	7	7.1	8.2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음	60	61.2	69.4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30	30.6	100.0
	총응답	98	90.7	
	무응답	10	9.3	
	Total	108	100.0	

V. 결론

1. 결론

컴퓨터, 과학, 교통,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세계는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모하고 발달해 가는 세계와 교류를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과의 능숙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어인 영어의 사용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조기영어교육 실시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조기 영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수업 교과목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은 좀더 어린 연령층의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쳐 이제 조기영어교육은 사회적으로도 당연시되는 하나의 교육형태가 되었다.

이제 영어교육의 시작연령은 점점 더 하향화되어 4세, 5세의 영어학습은 물론이고 6개월, 돌도 안된 아기를 학원에 안고 와서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엄청난 관심의 결과로 비롯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의 노력이 과연 그 효과를 100% 나타내는지, 즉 조기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노력을 반영하는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영어능

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이 다른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보고 과연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어능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시작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능력은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영어능력이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에 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에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2학급과 중학교 1학년 11개 학급,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의 3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시험을 보게 한 후 그 학생들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질문 문항을 주어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통계분석 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총 479명이 시험에 응시하고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성의 없게 응시한 학생들과 설문에 답변을 모호하게 한 155명을 제외하고 324명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총 69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66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시험지는 Listening과 Reading & Writing으로 나누어 채점하고 두 분야를 합쳐 총점을 내어 설문 응답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버전 10.0)를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ANOVA(상관관계분석) 및 Chi-square test(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는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과 영어능력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경우 평균 영어능력점수가 22.44, 6세의 경우 28.56, 7세의 경우 28.29, 8세의 경우 24.17, 9세 이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 20.53의 점수가 나왔다. 영어 청취능력의 경우에도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 평균이 7.22, 6세는 10.22, 7세는 10.00, 8세는 8.97, 9세는 7.23으로 총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Reading & Writing의 경우는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의 평균이 15.22, 6세는 18.00, 7세는 18.29, 8세는 15.40, 9세부터는 13.61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과 영어능력의 내재화 정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대한 영어능력의 내재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33.3%가 영어로 꿈을 꾸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세는 55.6%, 7세는 21.4%, 8세는 20.7%, 9세 이후는 12.1%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영어학습을 하고 있어 영어교육 열기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학교 외 타 장소에서 학습한 기간이 길수록 영어능력점수와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시켜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부모님이 시켜서’가 32.7%, ‘학교에서 배

우니까'가 31.2%, '배워야 할 것 같아서'가 26.5%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학원교재를 이용하여 영어학습을 하는 경우가 45.5%,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36.4%이었으며 중학생들 또한 영어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학원교재가 56.8%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상위 30% 학생들은 95.5%가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하위 30%의 학생들은 72.7%가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학습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어능력시험 성적 상위 30%의 학생과 하위 30% 학생들의 학교외의 장소에서 학습한다는 응답을 분석한 결과 상위 집단은 84.2%, 하위집단은 74.5%로 조사되어 사교육 여부는 영어능력에 있어서 변수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곱째, 영어능력시험 성적 상위 30%의 학생과 하위 30% 학생들의 영어학습 실태를 보면 상위 87%, 하위 73.5%가 1주일에 3번 이상을 학습한다고 응답하였고 1회 학습시간은 상위 85%, 하위 65%가 30분 이상을 학습한다고 하여 공부 횟수나 시간이 영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처럼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학교의 경우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과 영어능력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이 꼭 반비례하지는 않았다. 즉 6세, 7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영어능력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시작할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졌으며 5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의 영어능력 또한 8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경우보다 평균점수가 낮아 영어학습을 5세 이전의 너무 어린 연령층에게 실시하는 것은 그 노력에 비해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어학습을 시작한 연령에 대한 영어능력의 내재화 정도의 차이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경우도 6세 이상에서 영어학습 시작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내재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5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는 6세에 시작한 경우보다 낮았다. 이 또한 너무 어린 연령층에 영어학습을 시키는 것은 노력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학습 시작연령과 영어능력의 내재화정도의 차이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어능력시험 성적 상위 30%의 학생과 하위 30% 학생들의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학습여부를 보면 초등이나 중등 모두 비슷한 비율의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영어성적이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영어능력시험 성적 상위 30%의 학생과 하위 30% 학생들의 영어학습 실태를 보면 1주일에 공부횟수나 공부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횟수나 시간 자체가 영어능력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다른 변수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초등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연구에 사용된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특정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균등한 표본의 사례수를 확보하여 결과가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어학습 시작연령별 집단의 표본수를 같게 하여 비교하려고 하였으나 어린 연령층에서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의 수가 많지가 않았다. 즉 표본집단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초등학생들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아 분석이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었으므로 충분한 표본의 사례수를 확보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기영어교육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상 많은 다른 영역들을 수용하여 발달하여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영어학습이 영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영어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의 여건상 Listening과 Reading & Writing 영역만을 평가하였으나 Speaking영역까지 넓혀 전반적인 언어구사력을 측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기영어교육이 전반적인 영어능력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추적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로 6, 7세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학생들보다 5세 이전에 시작한 학생들의 영어능력 점수가 더 낮아 너무 어린 연령의 유아들에게 영어학습을 시키는 것은 노력과 투자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져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 이후, 9세 이전에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영어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 연령을 낮추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경석(1993).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영어교육*, 46.
- 김은아(1996).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철·고경석·박약우·이재희·김혜련·박기화 공저(1998). *초등영어 교수법*. 서울 : 학문출판.
- 김희숙(1995). On the Optimum Age to Learn L2 English. *응용언어학* 8, 282-285.
- 배두본(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서울 : 한국문화사.
- 배두본(2000). 유아영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제4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 배천용(1986). 한국외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86-95.
- 이경희·전예자(1996).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 203-230.
- 이기숙(1992). *유아교육과정*, 개정판. 서울 : 교문사.
- 이숙자(2001). 가정에서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 이완기(2000).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 문진미디어.
- 이혜란(1994). 조기의국어교육 효율성의 이론적 배경. 한국 아동학회 춘계 학술 논문 발표집, 5-20.
- 이혜란(1995). 영어조기교육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 *응용언어학*, 8, 3.
- 정태열(1998).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조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규(2000). 유아영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제14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유아교육학술대회.
- 한국 교육 개발원(1986). 외국어 교육 방법 개선 연구. 서울민족문화문고 간행회.
- Ausubel, D. P.(1964). Adults versus Children in Second-Language Learning :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Modern Language Journal*, 48, 420-424.
- Brown, 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Brumfit, C., Moon, J. & Tongue R. (1991).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London: Harper Cillins.
- Bruner, J. S. (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NY : Norton.
- Burstall, C.(1978). Factors Affecting Foreign-language Learning: A Consideration of some recent research findings. In V. Kinsella(ed).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Surv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1959). *Review of Verbal Behavior by B. F. Skinner*, *Language* 5, 104-128.
- Eliot, A. J.(1983). *Chil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1964).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Blooming : Indiana Univ. Press.
- Holen, S.(1987).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cation - Old Problems and New Perspectives, *The Linguist* 26(3),

- Hutchinson, T. & A. Waters(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s, D.(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Penguinbooks.
- Jakobovits, L. A.(1970). *Foreign Language Teaching A Psychological Analysis*, Newbury House Press.
- Krashen, S. D.(1973). Mental abilities underlying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functions. *Linguistics*, 115.
- Krashen, S. D. & Terrell T. D.(1983). *The natural approach :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 Pergamon and Alemany Press.
- Lenneberg, E.(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51-154.
- Maratsos, M.(1989). Innateness and plasticity in language acquisition. In M. Rice and R. L. Schielbusch(eds). *The teachability of language*. Baltimore, MD: Brooks/Cole.
- Mcneil, D.(1966) *Development Psycholinguistics*. F. Smith and G. A. Miller, Eds. Cambridge : MIT Press.
- Naisbitt, J.(1993). *Global Paradox*. New York: Mass Market Paperback.
- Novoa, L., Fein, D. & Obler, L. K.(1988). Talent in foreign languages, In L. K. Obler, & D. F. Fein(eds.), *The Exceptional Brain*. New York: Guilford Press.
- Oliva, P. F.(1969).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Englewood

-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Penfield, W.(1959). *The Learning of Languag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Penfield, W. & Roberts, L.(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6-70.
- Perskly, R. L.(1954). 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38.
- Piaget, J.(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Y.: International Univ. Press.
- Piaget, J. & Inhelder, B.(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Rivers, W.(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ansky, E. J.(1975). The Critical Period of the Acquisition of Language: Some Cognitiv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6, 92-102.
- Santrock, J. W.(1994). *Child development*. Madison. WI: Wm. C. Brown Communications, Inc.
- Schumann, L.(1975). *Sociology and Language*. Mass.: MIT Press.
- Scovel, T.(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 *Language Learning*, 19.
- Skinner, B. F.(1957). *Verbal Behaviour*.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Slobin, D. I.(1978). *Psycholinguistic*. Glenview: Scott, Foresman & Co.

Spodek, B.(1991).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 MIT Press.

Stickland, D. S. & Morrow, L. M.(1989). Oral Language Development:
Children as Storytellers, *The Reading Teacher*, 44(3),
260-61.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Study and English Competence

Lim, Hyun-H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ppropriate beginning time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Today, we live in the earth-village that is very competitive and cooperative. We couldn't live if we didn't have an 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them. So, we should have a proper communicative competence as a means of international exchange to live in such a time.

There are more than about 150 kinds of languages in the world. And almost 80% of the world information is composed of English language.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nglish is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the time.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very concerned about English performance compet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adopted English as a formal subject in elementary schools in 1997.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old on pre-school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market is expanding fast each year. It almost mounted up to 3 trillion-won.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is getting lower gradually, even to toddlers. It has not been verified how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affect children's English competence and to what extents it is effective.

So, parents tend to choose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completely relying on advertised words of compan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asonable beginning time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The concret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oes English competence have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Second, if English competence is high when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is low, do the English competences have considerable differences on children's English competences?

To this end, this study inspected theories of supporting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and opposing one. And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14 classes(1st graders) and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2 classes(6th graders) who have sufficient intelligent abilities were selected as subjects. I had them take tests and evaluated their English competences. And I took statistic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ir English competences and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through a test and a questionnair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competence

and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didn't have any meaningful correlations. But there existed a meaningful correlation in 1st graders in the middle school. English competence was not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That is, for the age of 6-7, they showed the highest scores of the test. and for the older, the lower. And the 5 and below indicated lower scores than 6 or 7 years old. Therefore, Enforcing English Education under 5 years is less effective than 6 or 7 years.

Second, The internalized extent of English competence and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education didn't have a meaningful correlation in 6th graders of the elementary school. But for 1st graders of the middle school, They had meaningful correlations. But the internalized extent of English competence was not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beginning age of English learning.

In other words, for the age of 6-7, they showed the best internalized English competence. And the older, the poor. But the 5 and below took lower internalization than 6 or 7 years old. Therefore, English Education under 5 years is less effective than 6 or 7years.

Third, high-ranked 30% students and low-ranked 30% students in scores were attending private institutes at a similar proportion. That means English competence is not always good in every case of attending institutes.

부 록

[부록 1] 설문지	87
[부록 2] Movers	89
[부록 3] Flyers	108

[부록 1] 설문지

※ 질문을 잘 읽은 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본 설문지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작성하신 설문지는 담임선생님께 내주세요.

()학년 ()반 ()번 이름()

1. 지금 학생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① 9세 ② 10세 ③ 11세 ④ 12세 ⑤ 13세
2. 지금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① 네 ② 아니오
3.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얼마동안이나 공부했나요?
① 1년 이하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4~5년 ⑥ 5년이상
4. 언제 처음 영어공부를 시작했나요?
① 5세 이전부터 ② 6세부터 ③ 7세부터 ④ 8세부터 ⑤ 9세 이후
5. 1주일에 영어공부를 몇 번이나 하고 있나요?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6. 하루에 영어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10분 이하 ② 20분 정도 ③ 30분 정도 ④ 40분 정도 ⑤ 50분 이상
7. 영어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매우 재미가 있다. ② 약간 재미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재미가 없다. ⑤ 전혀 재미가 없다.
8. 영어공부가 재미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① 영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알게 되므로 ②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③ 발음이 좋아져서 ④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칭찬 받아서
⑤ 영어로 말하면 왠지 멋있는 것 같아서
9. 영어공부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배우기가 어려워서. ② 재미가 없어서.
③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④ 부모님이 억지로 하라고 시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10. 자신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영어 동화책 ② 멀티미디어 교재(카세트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ROM)
③ 학원교재 ④ 그림이나 단어카드
⑤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11.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영어 동화책(듣기, 읽기) ② 멀티미디어 교재(카세트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ROM)
 ③ 게임, 놀이 활동 ④ 챗트, 노래
 ⑤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12. 어떻게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① 부모님이 시키셔서 ② 학교에서 배워서 ③ 친구들이 하나까
 ④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⑤ 배워야 될 것 같아서
13.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하세요)
 ① 학원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배운다. ② 학원에서 한국인 교사에게 배운다.
 ③ 외국인 교사에게 개별 과외를 한다. ④ 한국인 교사에게 개별 과외를 한다.
 ⑤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한다. ⑥ 집에서 가족과 함께한다.
14. 어떤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하세요)
 ① 단어들기, 말하기 ② 단어 읽기 ③ 단어 쓰기 ④ 간단한 문장 듣기, 말하기
 ⑤ 간단한 문장 읽기 ⑥ 문장 쓰기 ⑦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15. 지금 영어공부에 대해 만족하나요?
 ① 매우 불만족하다 ② 대체로 불만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하다 ⑤ 매우 만족한다
16. 영어로 공부하거나, 말할 때에 기분이 좋은가요?
 ① 기분이 매우 나쁘다 ② 대체로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분이 좋다 ⑤ 매우 기분이 좋다
17. 친구에게나 집에서 영어로 말을 하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하지 않는 편이다 ③ 부분적으로 영어로 말을 한다
 ④ 가능한 한 영어로 말하려 한다 ⑤ 영어로만 말한다
18. 자주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에 대해서, 친구들이 따돌리나요?
 ① 따돌린다 ② 조금 따돌리는 편이다 ③ 따돌리지 않는다 ④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19. 영어발음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 친구들이 놀리거나 따돌리나요?
 ① 놀리고 따돌린다 ② 조금 놀리고 따돌리는 편이다 ③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는다
 ④ 부러워하고 좋아한다.
20. 영어로 꿈을 꾸어 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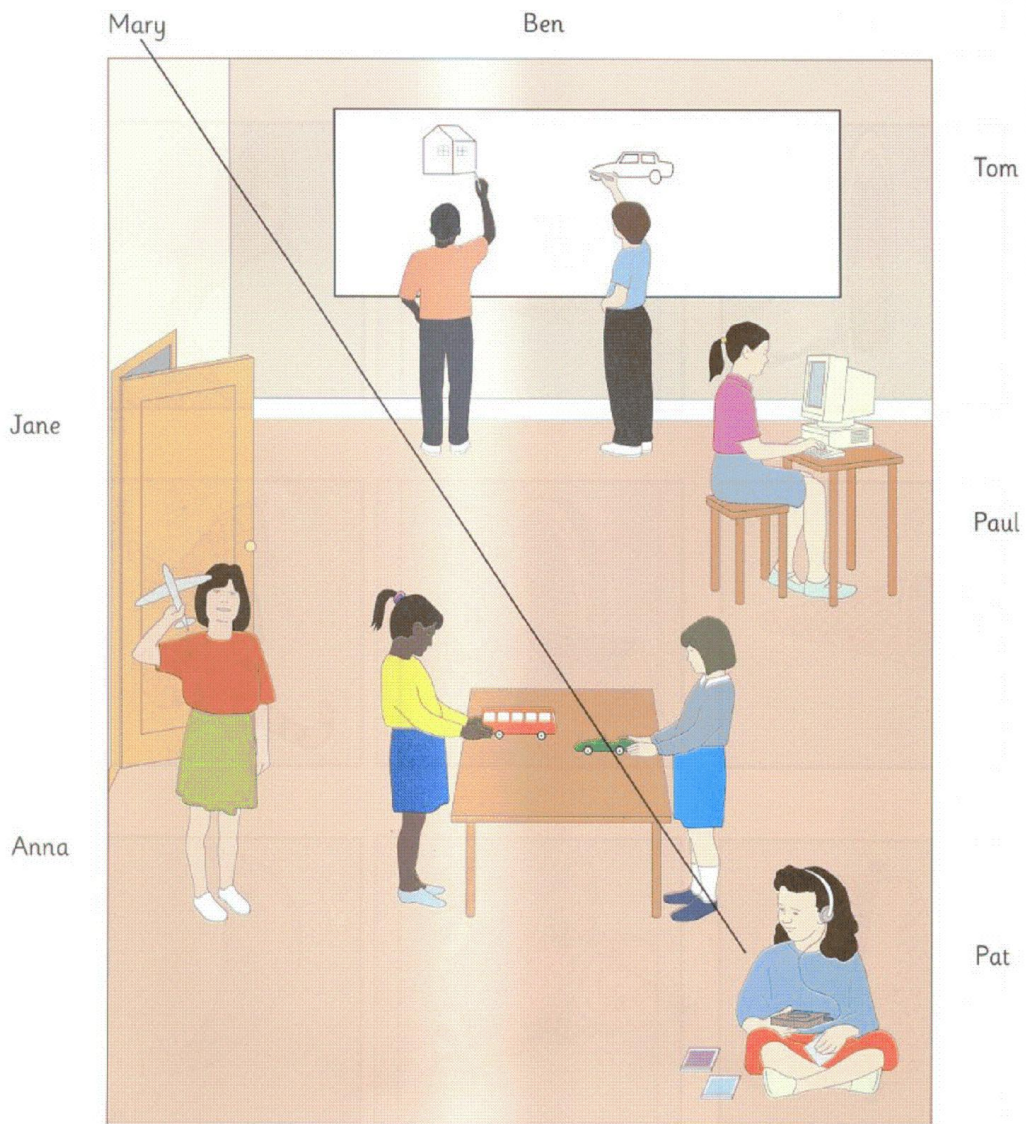
[부록 2] Movers

Test 2 Listening

Part 1 - 5 questions -

Listen and draw lines.

Example:



Part 2
- 5 questions -

Listen and write. There is one example.

Example: Name: Mary .. Smit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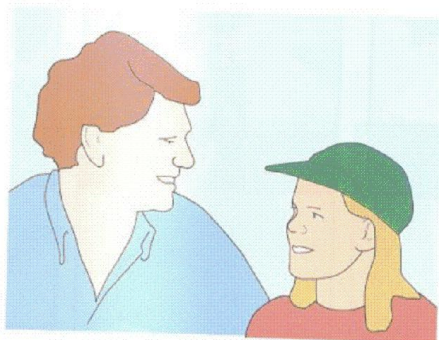
1. How old:

2. Hair colour:

3. Eye colour:

4. How many brothers:

5. Si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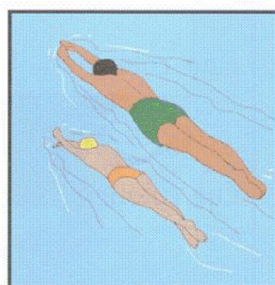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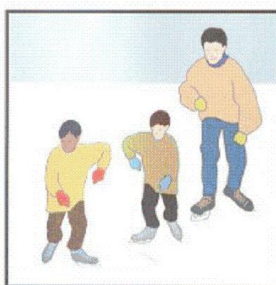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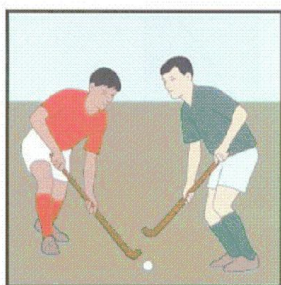


Part 3

- 5 questions -

What did Paul do last week? Listen and write the correct day.
There is one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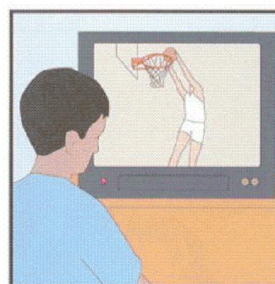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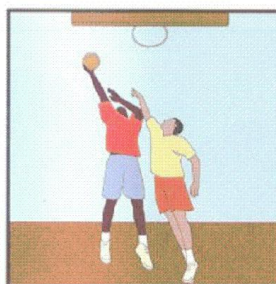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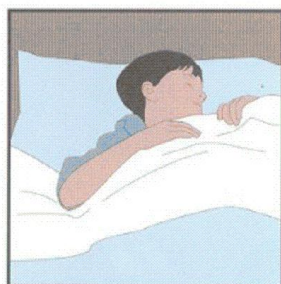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Tuesday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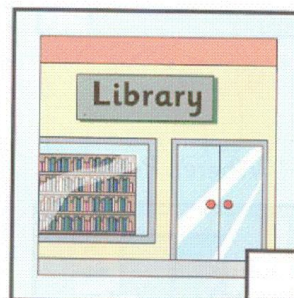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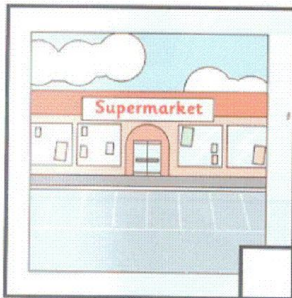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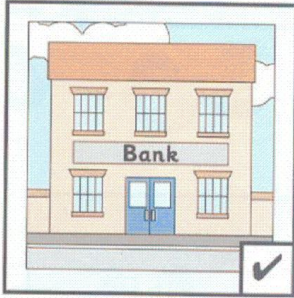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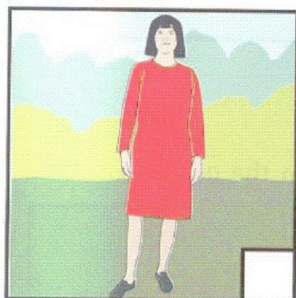
Part 4
- 5 questions -

Listen and tick (✓) the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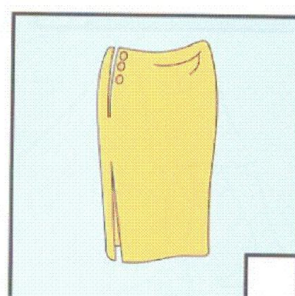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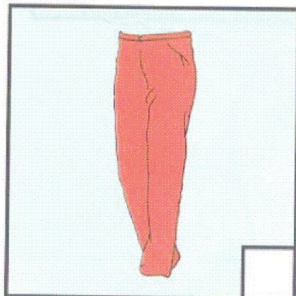
Example: Where is Pat's Dad g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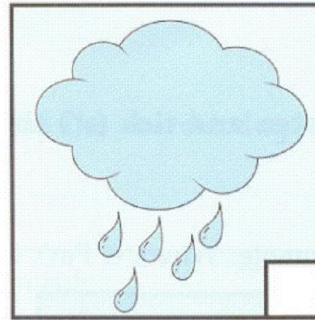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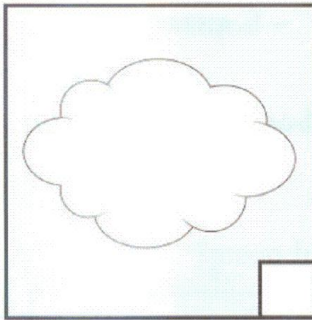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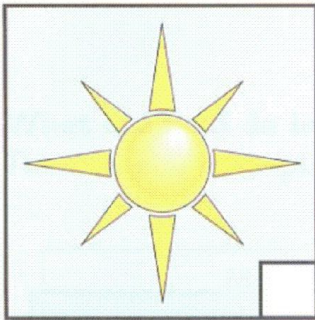
1 Which one is Pat's m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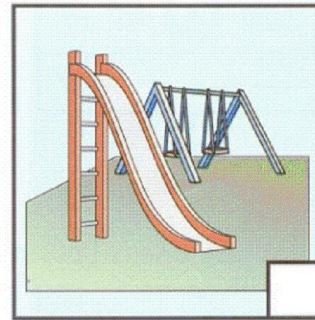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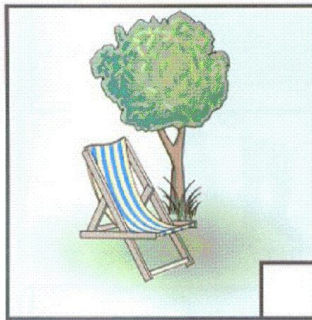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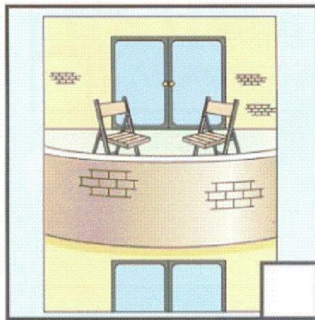
2 What does Pat want to 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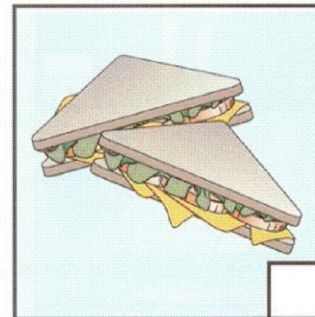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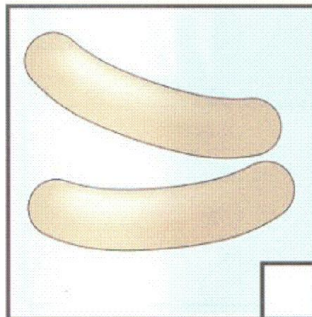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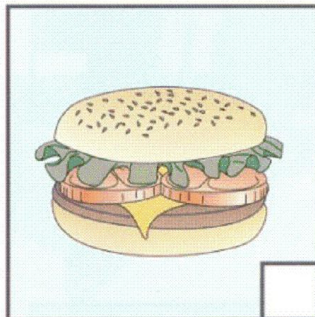
3 What was the weather like here yesterday?



4 Where's P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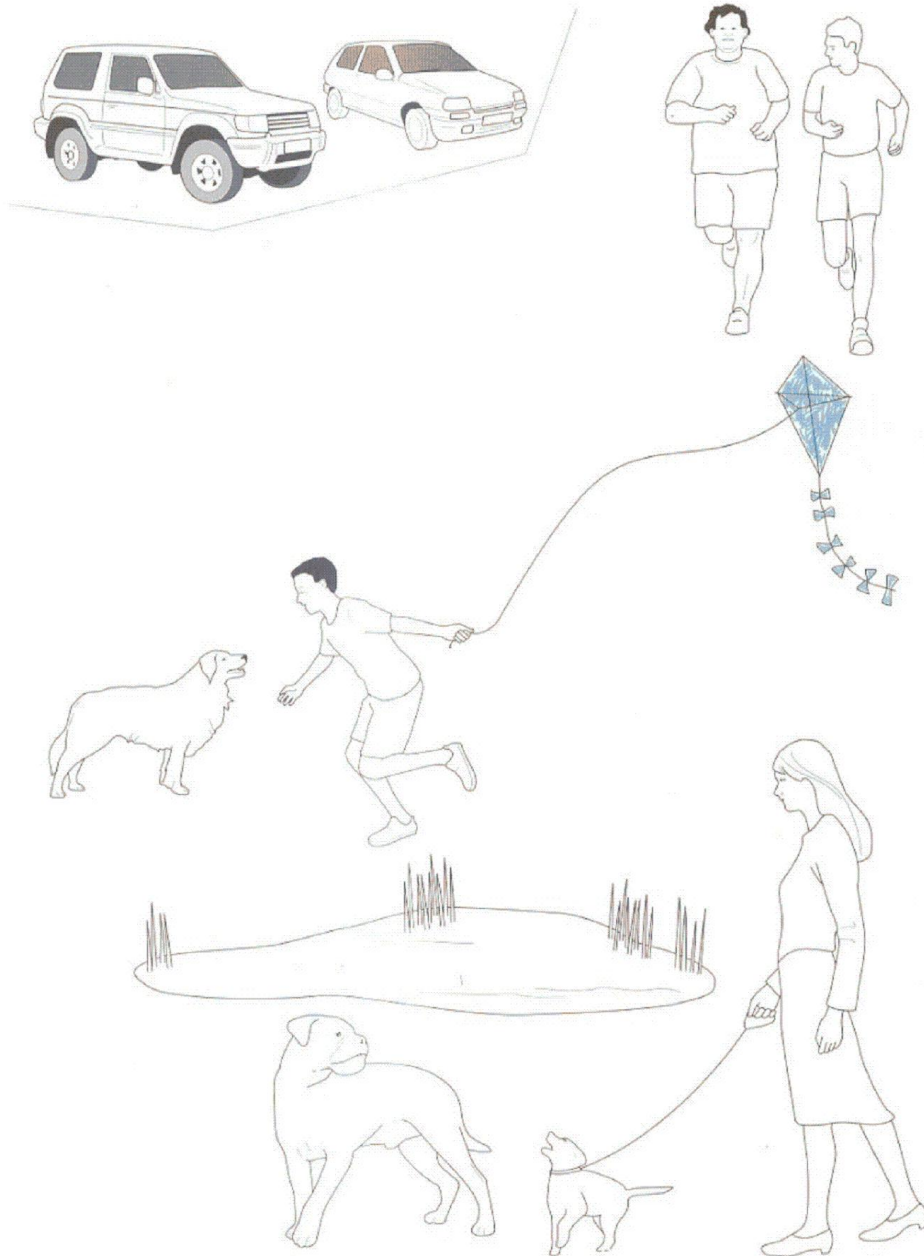


5 What will they take on the picnic?



Part 5
- 5 questions -

Listen and colour and draw/wr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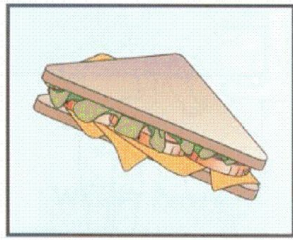
Test 2

Reading and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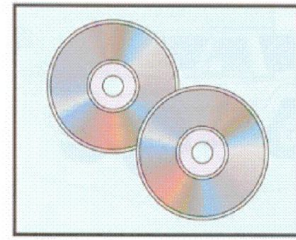
Part 1

- 6 questio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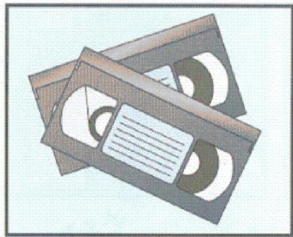
Look and read. Choose the correct word and write it on the line.
There is one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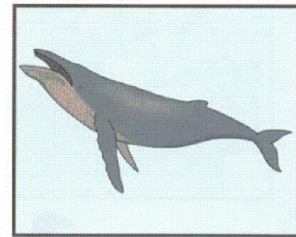
a sandw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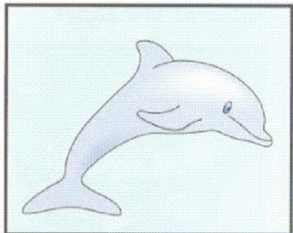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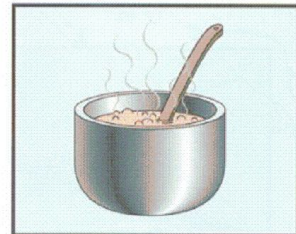
vide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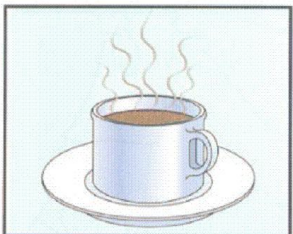
a wh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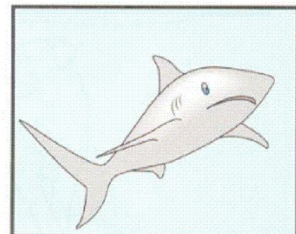
a dolphin



soup



coffee



a shark

Example:

This is the biggest animal in the world.

a whale

Questions:

1 You can listen to music with these.

.....

2 We can watch these at home at the weekend.

.....

3 On cold days it is good to have a hot bowl of this.

.....

4 People are afraid of this animal, which lives in the sea.

.....

5 Some people drink this hot, with milk and sug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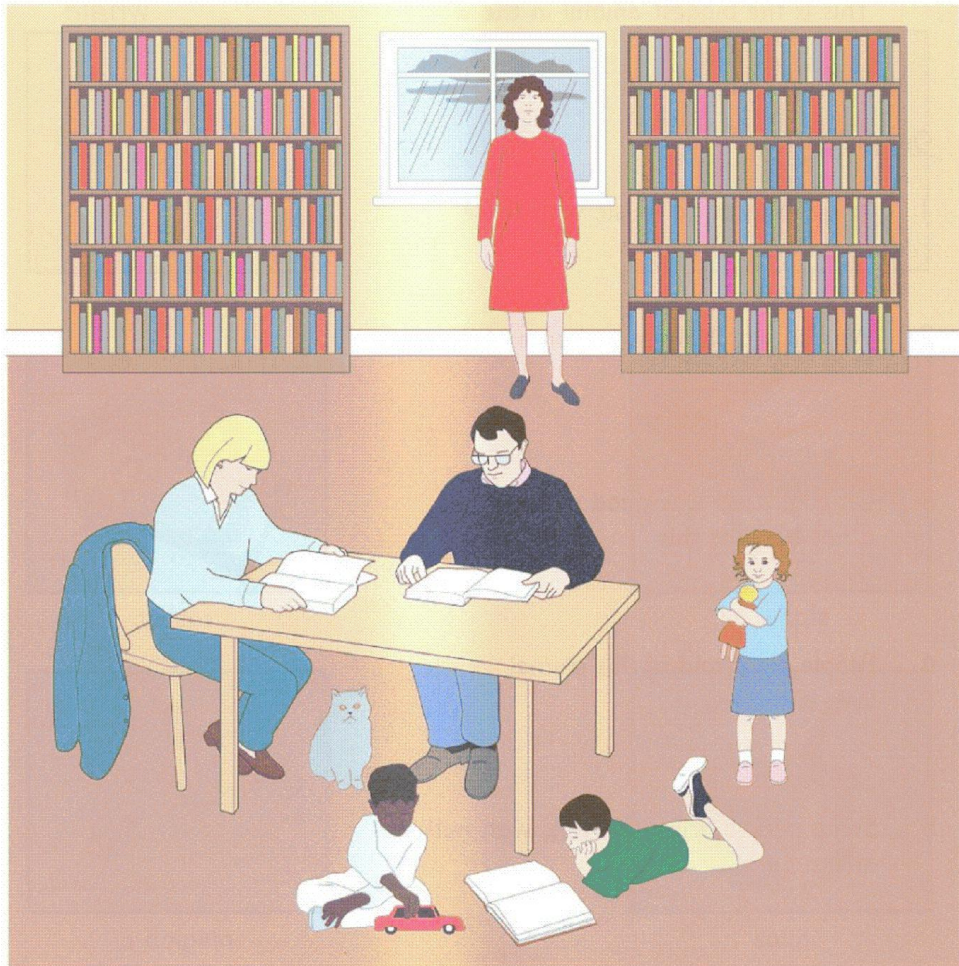
.....

6 Put butter and cheese between bread and you have one of these.

.....

Part 2
- 6 questions -

Look and read. Write **yes** or **no**.



Examples:

The man at the table is wearing glasses.

.....
yes

The little girl is carrying a d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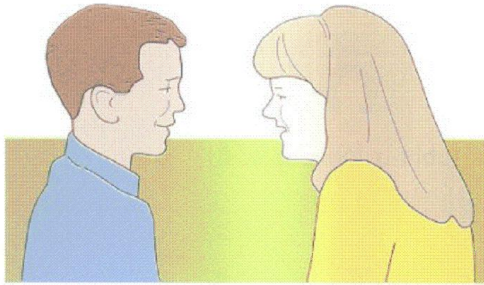
.....
no

Questions:

- 1 The woman between the bookcases is wearing a red dress.
- 2 The cat under the table is looking at the boy.
- 3 One of the boys is playing with a robot.
- 4 The woman at the table is putting on her jacket.
- 5 It's a beautiful sunny day.
- 6 One of the women has got brown curly hair.

Part 3
- 6 questions -

Read the text and choose the best answer.



Example:

Paul: Hello Sally. How are you?

Sally: A I'm very well thanks.
B It's good thanks.
C I'm going to school.

A

Questions:

1 Paul: What did you do on your birthday?

Sally: A It was on Saturday.
B I had a party at home.
C Yes, I did.

2 Paul: Did you have a cake?

Sally: A Yes, I do.
B Yes, I have one.
C Yes, I did.

3 Paul: How many friends came?

- Sally: A I don't know.
B I don't think.
C I'm afraid.

4 Paul: Have you got any photos of the party?

- Sally: A Yes, excuse me.
B Yes, please.
C Yes, they're here.

5 Paul: This one's very good.

- Sally: A Yes, it's well.
B Yes, I like it.
C Yes, it's ugly.

6 Paul: Oh, look, the lesson is starting.

- Sally: A Oh, I must go.
B Good morning.
C It's mine.

Part 4
- 7 questions -

Read the story. Look at the pictures and the examples.
Write one-word answers.

Last weekend I went to the country with my parents. My father stopp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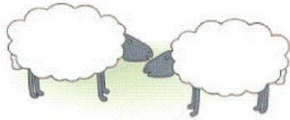
the *car* on the grass between two trees. We got



out and then we *walked* into a field. We looked at



some beautiful and took a picture of s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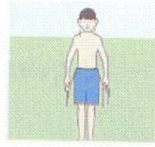
..... Then my father shouted and I



..... a cow running after me! I was afraid



and I quickly ran to the river, jumped in and



My mother laughed because I was She said

'The cow doesn't want to hurt you, she wants to be your friend.



Come here and give her this

What is the best name for this story?

Tick one box.

At work on the farm

A week in the country

A new friend

Part 5
- 10 questions -

Look at the pictures and read the story. Answer the questions.
Do not write more than three words.



My name is Daisy and I'm eight. Last holiday I wanted to see my grandmother. She lives in a small village by the sea. I like it there because I can swim and play on the beach. My mother took me to the bus stop and put me on the bus that went to the bus station in the town.

Example:

How old is Daisy?

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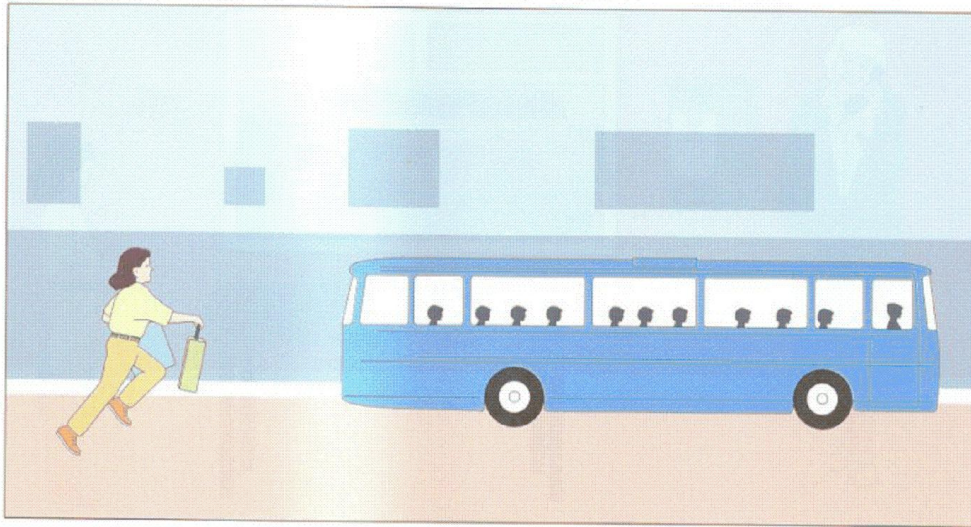
Questions:

1 Where is her grandmother's village?

2 What does Daisy like to do on the b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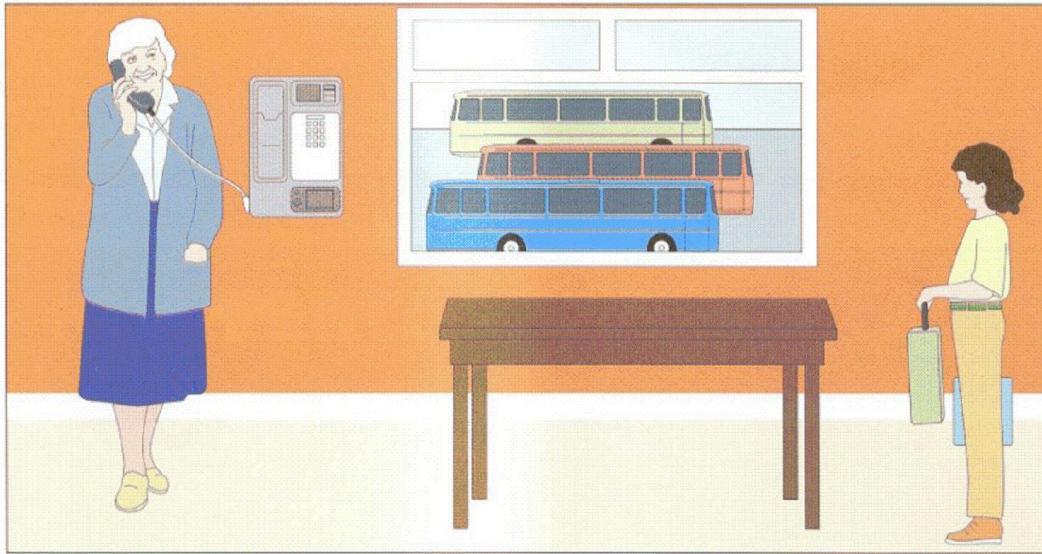
3 Who took Daisy to the bus stop?





In the bus station I had to find another bus – bus number 20. I was hungry, and I bought a chicken sandwich and some lemonade in a café. Then I saw the bus start so I ran and quickly jumped on. I sat next to an old woman who talked a lot. It was hot and I slept. I woke up and the bus was in another bus station, but it wasn't my grandmother's village!

- 4 Which number bus did Daisy need?
- 5 What did she buy to drink?
- 6 Who did Daisy sit next to?
- 7 Why did Daisy sleep? *because*



I was sitting on the wrong bus. It wasn't bus number 20. I was afraid and I started to cry. The old woman said, 'What's the matter?' I told her my story. She telephoned my grandmother and then she found another bus which went to my grandmother's village. She put me on this bus and gave me some cake. I was very happy and I said, 'Thank you very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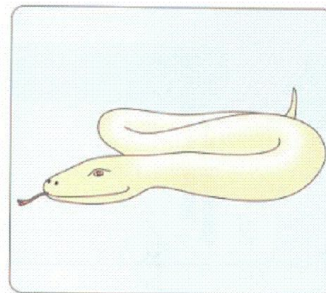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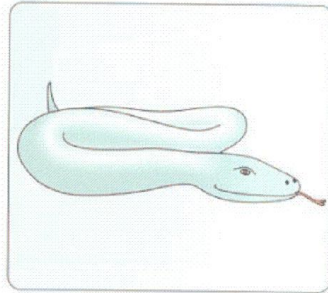
8 Why did Daisy cry? *because*

9 Who did the old woman telephone?

10 What did the old woman give Daisy?

Part 6
- 6 questions -

Read the text. Choose the right words and write them on the lines. There is one example.



Snakes

Example: A lot of people are very afraid *of* snakes.

1. They think all snakes ugly and want to hurt them. But this is wrong because some snakes are very beautiful and

2. don't hurt people. Snakes often

3. in the grass or in forests. Some of them

4. eat mice. Some snakes can climb trees very

5. and they can swim rivers.

You must always be careful with snakes and you must never pick

6. up.

<u>Example:</u>	to	for	of
1.	is	are	were
2.	it	she	they
3.	live	lives	lived
4.	quick	quickly	quicker
5.	at	by	in
6.	you	them	it

[부록 3] Flyers

Test 1 Listening

Part 1 - 5 questions -

Listen and draw lines. There is one example.



Part 2

– 5 questions –

Ann is going to write a story about an old woman, Mrs Hill, who has been married for a long time. She's talking to her now.

Listen and write. There is one example.

Mrs Hill

Year she met her husband: _____ 1947 _____

1 Month they met: _____

2 Husband's name: _____

3 Where she met her husband: _____

4 How old when they met: _____

5 Their hobby: _____

Part 3

- 5 questions -

What time does each person usually get up in the mo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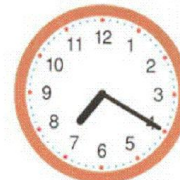
Listen and write letters in the boxes. There is one example.



E



A 6.45



B 7.20

1



C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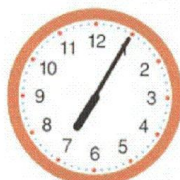


D 7.15

2



E 7.30



F 7.05

3



G 6.40



H 6.55

4



5



Part 4

- 5 questions -

Listen and tick (✓) the box. There is one example.

How many homes has Aunt Betty got?

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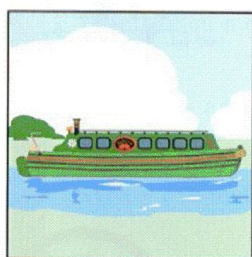
2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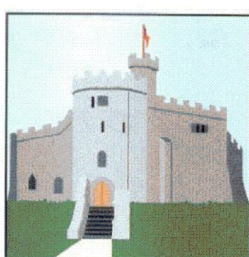
3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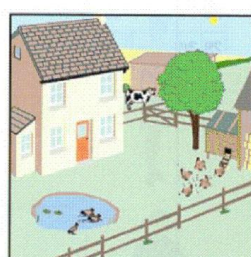
1 Where does Aunt Betty live in the summer?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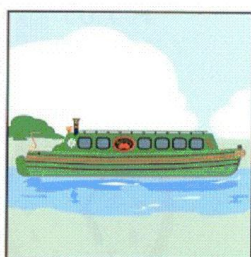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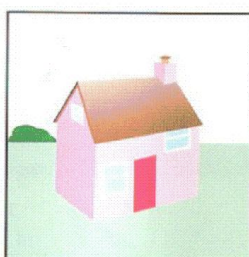


C

2 Where is Aunt Betty's winter hom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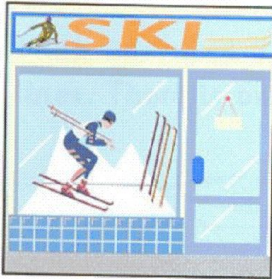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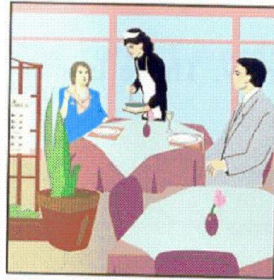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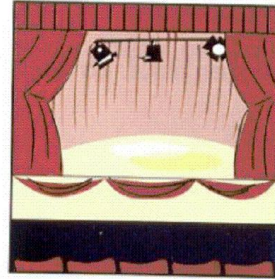
3 Where does Aunt Betty work in the winter?



A



B



C

4 How often does Richard see Aunt Betty in the summer?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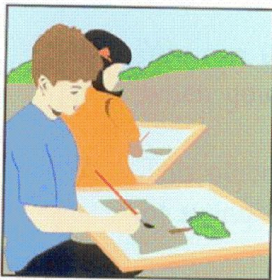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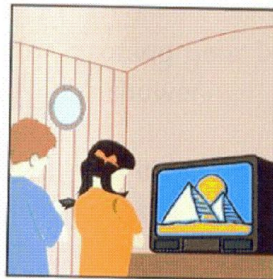


C

5 What do Richard and his sister do when they visit Aunt Betty?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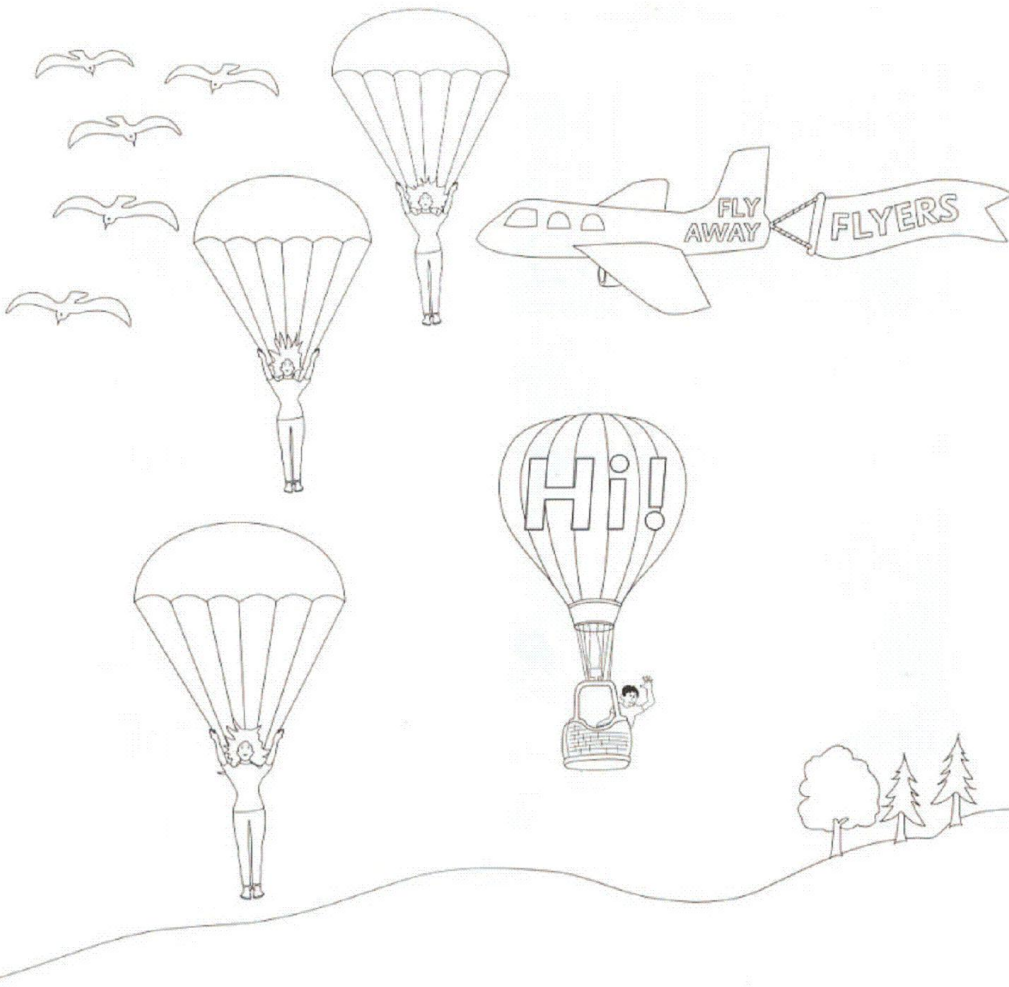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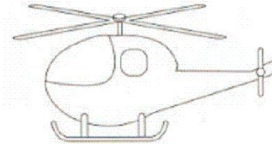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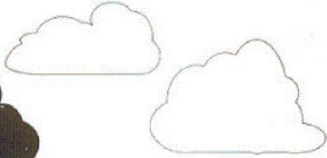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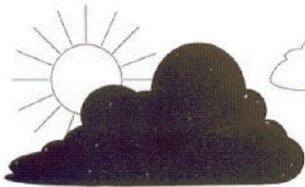


C

Part 5

- 5 questions -

Listen and colour and draw. There is one example.



Test 1

Reading and Writing

Part 1

– 10 questions –

Look and read. Choose the correct words and write them on the lines. There is one example.

a toothbrush

a university

an a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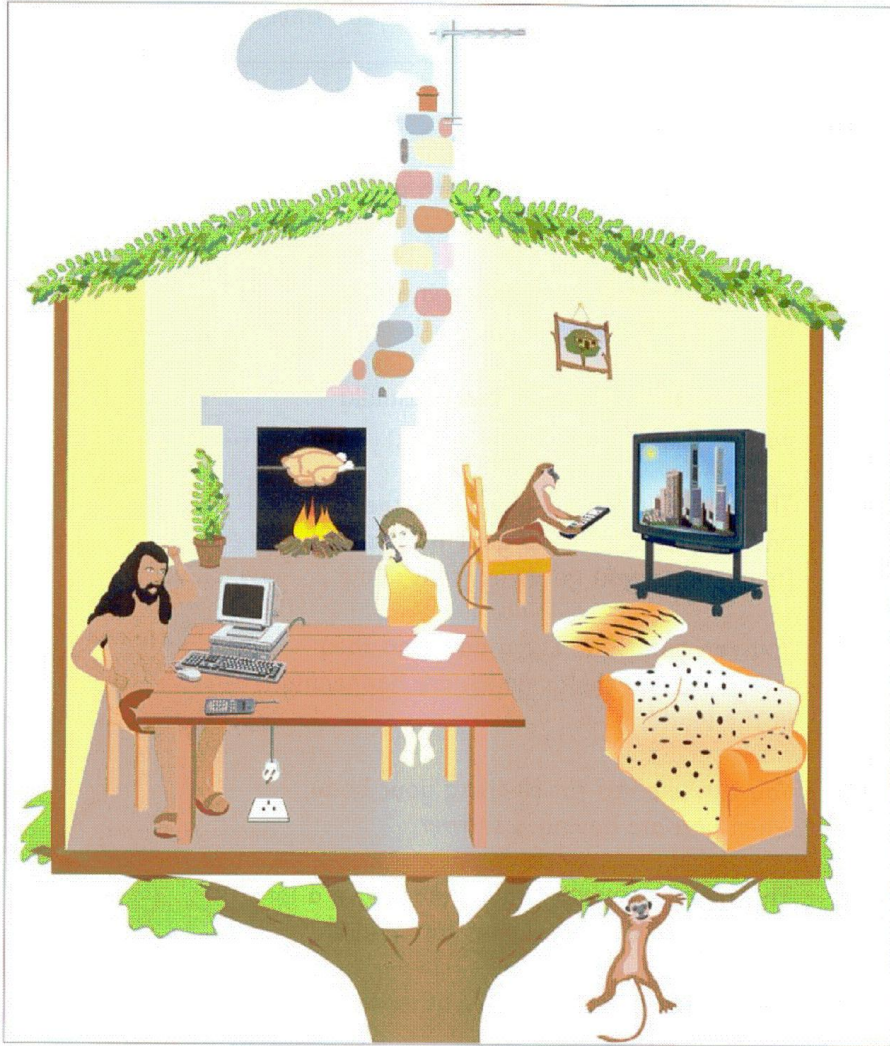
a playground

	You use this to clean your teeth.	a toothbrush	
a school	1 You use this when you want to get dry, after washing or swimming.	books
	2 This is the place young children go to, to study and learn.	
	3 This is a kind of home, and is usually on one floor.	a towel
a toilet	4 These usually have a picture on the front, and you write them to your friends and family when you go away from home.	
	5 You can buy these every day, and they tell you about things which are happening in the world.	newspapers
soap	6 You can use this for cleaning your body, when you are having a shower.	
	7 This place is outside, and it may have a lot of swings and other games for children.	a tent
postcards	8 You can buy medicines and other things at this place.	
	9 You write in these, to help you remember important dates and times.	diaries
chemist's	10 These are usually for children, and pictures help you understand the stories in them.	comics

Part 2

- 7 questions -

Look and read. Write **yes** or **no**.



Examples

There is a chicken cooking on the fire.

.....yes.....

This house is under a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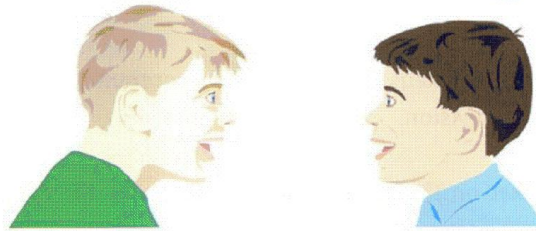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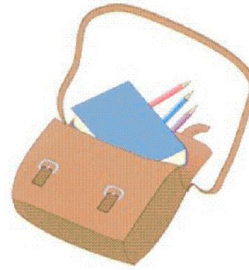
.....no.....

Questions

- 1 One of the monkeys is watching a programme about a city on television.
- 2 The blanket on the sofa has got stripes which look like a tiger's stripes.
- 3 The woman's phone is on the table next to her papers
- 4 The man's hair is longer and darker than the woman's hair.
- 5 The monkey inside the house is holding a video in its hand.
- 6 The monkey outside the house is playing on a swing.
- 7 Someone has turned off the man's computer.

Part 3
– 5 questions –

Read the text and choose
the best answer.



Example

Michael: When does your school start again, Harry?

- Harry:**
- A Last Monday.
 - B On Monday.
 - C Every Monday.

Questions

1 **Michael:** Have you enjoyed your summer holidays this year?

- Harry:**
- A Yes, very much.
 - B Yes, every time.
 - C Yes, but not very.

2 **Michael:** Have you bought all the things you need for school?

- Harry:**
- A No, I don't need school.
 - B No, I don't always buy it.
 - C No, I'm going shopping today.

3 **Michael:** Where do you usually buy your things for school?

- Harry:**
- A In town.
 - B In my school bag.
 - C On a shelf.

4 **Michael:** Who is going to be your teacher?

- Harry:**
- A Miss Richards was teaching me.
 - B Miss Richards is going with me.
 - C Miss Richards, for most subjects.

5 **Michael:** When is your next school holiday?

- Harry:**
- A It's every summer.
 - B It was last August.
 - C It starts in November.

Part 4

– 6 questions –

Read the story. Look at the pictures and the two examples. Write one-word answers.



I enjoyed last *weekend* very much. My sisters and I couldn't



go out all day on Saturday, because it was *snowing*

and very windy. Our road was closed too, so my parents couldn't



..... into town. Mum made a 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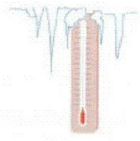


..... in the sitting room, and we all sat near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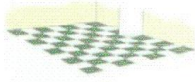
and played games. After that, my dad played the piano, and we



..... our favourite songs. At night, our bedrooms were



too to sleep in, so we all lay on the sitting room



..... next to the fire, and mum told us stories all night.

It was great!

What's the best name for this story?

Tick one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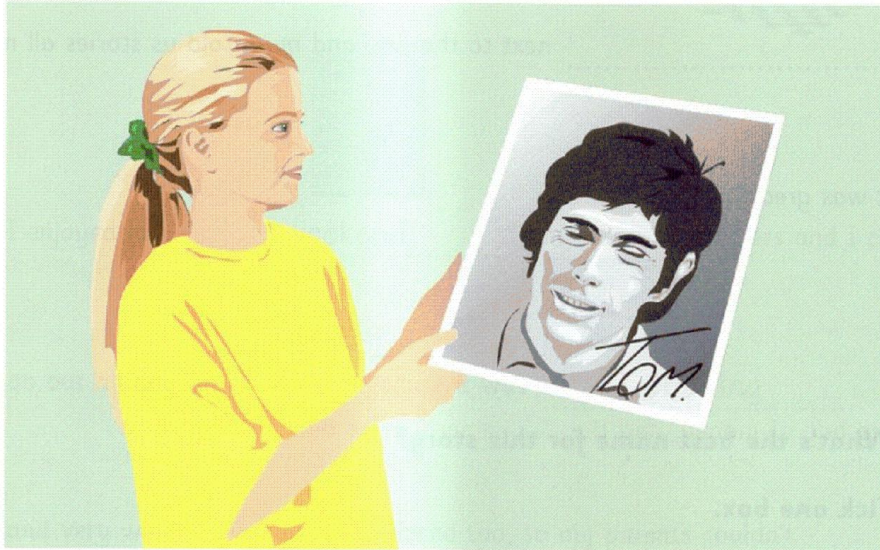
A weekend of sports

One winter weekend

The horrible weekend

Part 5
– 7 questions –

Look at the pictures and read the story. Answer the questions.
Do **not** write more than **four** words in each answer.



My name's Katy, and this is my Uncle Tom. He's an actor. He's not famous, but last year he made a film in America with some very famous American actors. They made the film in a big city. It was the best job he has ever had. In the film he stole a lot of money from a bank.

Example

What's Uncle Tom's job? *he's an actor*

Questions

- 1 Where in America was the film made?
- 2 In the film, where did Uncle Tom steal the money from?



One day, Uncle Tom was making the film in a park with all the other actors and camera men. Uncle Tom was running across the grass with a big bag of money, and the film cameras were behind him. But a policeman didn't see the cameras, so he stopped Uncle Tom and took him to the police station.

- 3 What were the actors doing in the park?
- 4 Where did the policeman take Uncle 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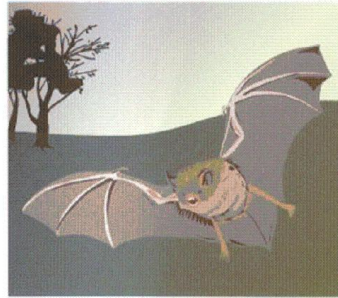


The policeman asked Uncle Tom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bag of money. But he didn't believe Uncle Tom's answers! Then, a famous actor from the film went to help Uncle Tom at the police station. The policeman believed Uncle Tom when he saw the famous actor, and he was very sorry. Uncle Tom went back to the park. Someone took a photo of him with the famous actor, and Uncle Tom sent the photo to me!

- 5 What didn't the policeman believe?
- 6 Who helped Uncle Tom?
- 7 Who did Uncle Tom send the photo to?

Part 6
– 10 questions –

Read the text. Choose the right words and write them on the lines.



Example My friend Janehas..... got a strange pet. It is a bat.

1 The first time I saw it I like it, but now I
2 think it's OK. I think it's ugly, but it's
3 clever and good flying. It also
4 hundreds of insects every day, and that's great.
5 Jane found it when she walking in the forest near
6 her house. It was very young, and noisy
7 it was hungry. Jane couldn't the mother bat
8 anywhere, so she carried the bat home in rucksack,
9 and gave it some food and milk. The bat can't see ,
10 it can only hear things. Jane is like mother now!

Example	have	has	having
1	wasn't	didn't	hadn't
2	until	still	ever
3	with	of	at
4	eats	ate	eaten
5	been	was	were
6	because	but	then
7	finds	finding	find
8	the	some	a
9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10	your	my	its

Part 7
– 5 questions –

Read the story and write the missing words. Write one word on each line.

Example Sarah's grandmother lives⁰¹..... a farm in the country, a long way from the nearest town. She has cows, sheep and a horse, and a very big vegetable garden. Sarah loves visiting her, and she goes every Saturday. In the mornings she helps her grandmother to

1 cheese from the sheep's milk, and in the afternoons

2 she rides the horse. Sarah goes home on Saturday evenings, but sometimes grandmother's old car doesn't start. Then,

3 she waits Sunday morning, and she goes home

4 bus. One Sunday, the bus did not come, and Sarah

5 had ride grandmother's horse all the way home!